

갱신과 부흥 Reform & Revival

Korea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2011 Vol.8

표지그림 :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렘브란트1647-1649)

03	권두언 •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이 개혁이다	이상규
05	개혁교회 강단 • 읍의 성품 • 신앙세계는 천국을 보여준다	존 칼빈 한상동
31	개혁신학 산책 • 개혁주의 구약성경 해석과 적용 • 화평의 법으로서 교회법	최만수 성희찬
59	교회개혁의 역사와 인물 1 • 피터 왈도와 교회개혁	이상규
63	개혁신앙칼럼 •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고 언제 돌아가셨는가? • 땅 밟기에 대한 개혁주의적 입장 • 건강, 의료, 재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황원하 황대우 박시운
99	서평 • 조엘 비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칼빈주의』 • 존 맥아더, 『값비싼 기독교』	주강식 이운연
115	학술원소식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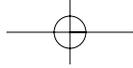
갱신과 부흥 • 2011년 4월 25일 발행 • 통권 8호

역은이 이상규 • 펴낸곳 고신대학교출판부 •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49-1

전화 051_990_2266 • 팩스 051_911_2526 • 이메일 kirs@kosin.ac.kr • 편집인쇄 JCOM 051_245_7623

ISSN 2005-4211

값 3,000원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권두언 Preface

이상규 |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이 개혁이다

개혁교회 강단 The Reformed Pulpit

존 칼빈(John Calvin) | 옴의 성품

한상동 | 신앙세계는 천국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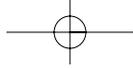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이 개혁이다

우리 시대 가장 흔한 말이 있다면 ‘갱신’ 혹은 ‘개혁’이란 말일 것이다. 한국 교회 개혁이니 한국교회 갱신이니 하는 말은 일상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여전히 개혁되어야 할 점이 많다. 개혁되어야 할 정도가 아니라 척결의 대상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한국기독교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차갑고 조롱에 가깝다. 신자들이 신뢰받기보다는 불신을 당하고 있고, 교회 공동체는 이익 집단처럼 인식되고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개혁을 말하지만 개혁을 말하는 나 자신부터가 사실은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다른 이를 말하기 전에 이 글을 쓰는 나 자신부터 그러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의 가슴을 열어 제치고 우리 내면을 바라볼 때 우선 나 자신부터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마음 은밀한 공간에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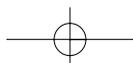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교회역사를 뒤돌아 볼 때, 인간의 마음 속 내면에는 물질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야망, 명예에 대한 욕망이 항상 있어 왔다. 이 세 가지가 인간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이런 저런 거창한 혹은 고상한 이유를 들먹이지만 따지고 보면 부와 명예와 권력에 대한 추구가 우리 내면의 진정한 동기가 아니던가? 이 3가지 인간의 욕구가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과도한 경쟁과 대립을 유발하고, 심리적이든 물리적이든 남을 해치고 상해하고 결국 개인과 조직 혹은 집단을 부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역으로 말해서 우리가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부터 조금만 자유하면 평화로운 행복을 맞볼 수 있고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3가지는 마치 아편과 같아서 쉬 포기하기 어렵다. 중세의 베네딕트수도원이 청빈의 이상을 가지고 수도적 삶을 다짐했으나 물질적 부는 이 정신을 흐리게 하였고 결국 본래의 수도정신에서 이탈하여 13세기에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탁발수도단체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소유나 물질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기 위해 결식의 삶을 추구했지만 이런 형태가 물질을 향한 인간 욕망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했다.

권력에의 야망도 다르지 않다. 일단 권력을 맛본 사람은 그 권력을 본능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아프리카-아메리칸 시인인 랭스톤 휴즈는 권력을 주도하려는 욕망을 권력 음란증, 혹은 권력 색광(色狂), nymphomaniacs of power)이라고 불렀다. 권력에는 플라톤이 말한 바처럼 ‘플로오넥시아’ 즉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지는 바닷물처럼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의 속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권력을 잡으면 이를 유지하고자 발버둥치고, 반대로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이는 이의 찬탈을 노린다. 이런 과정이 인간성을 앗아가고, 상대를 적과 아군으로 구분하고 과도하게 호의를 베풀거나 적대시하기도 한다.

명예에의 욕구 또한 동일하다. 우리 가운데 높은 자리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위력을 지니고 있는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명예는 권력과도 직결되어 있고, 부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 3가지는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독점하고자 한다. 심지어는 부당한 방법으로라도 이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런 인간행태가 개인과 조직, 그리고 교회를 속화시키고, 부당한 방법으로라도 이를 쟁취하려는 의지가 결국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다. 따라서 자족하는 삶과 섬기는 삶의 양식, 곧 부와 권력과 명예로부터 자유할 때 진정한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다시 읽는 칼빈의 설교 8

옴의 성품

(옴기 1:1)



“우스 땅에 옴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옴기의 내용을 통해 참된 유익을 얻으려면 먼저 옴기의 윤곽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쓰여진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마땅한 의무는 모든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며, 우리는 전적으로 사나 죽으나 당연히 그의 것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대한 전권은 창조주에게 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우리를 치시기를 기뻐하실 때라도,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하시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의롭고 정직하시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늘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를 거스려 싸운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 지게 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쟁론하지 말아야 함을 깨닫도록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욱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당신의 원하시는 대로 주관하실 권한이 있으며 우리가 처음 언뜻 보면 하나님이 냉엄하게 행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불평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면서, 어째서 우리를 징계하시는지 그 이유를 선언해 주시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한 동안 우리는 야고보 선지(5 : 11)가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이 책에 나오는 욱이란 사람의 인내를 목상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모든 비참을 견뎌내야 함을 보여주실 때,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임을 분명히 자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을 내세워 마땅한 구실로 삼아도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같이 연약하면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부단히 복종한 본을 보여 준 사람들의 실례를 생각하는 것이란 좋은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고통에 한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러한 경우를 보여주는 탁월한 실증을 만납니다. 그밖에 욱의 인내만을 생각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선지가 언급한 바와 같이 그 결과를 주목해야 합니다. 욱에게 천사보다 더 좋은 덕이 있었다 해도, 참기는 하면서도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면 좋은 결말을 맺지는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욱이 소망 중에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낮아졌기에 은혜를 얻고 것처럼 좋은 결말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순전한 선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시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것을

편한 마음으로 참아 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책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 책 속에 들어 있는 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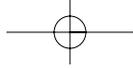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옴을 위로하는 척 하면서 옴의 질병 자체보다 옴을 더 괴롭게 했던 사람들과, 옴이 그 사람들의 참소, 곧 옴 자신을 좌초시키려고 시도했던 그 참소들을 듣고 한 대답들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로, 비록 하나님께서 고통을 보내시고 그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마귀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엡 6 :12) 우리가 영적 권세들과 싸워야 한다고 경고했던 바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해서 불을 지필 때 역시 그 풀무불을 더 세게 부쳐 대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영적 갈등이 외적 역경보다 어려워

다시 말하면 마귀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오래 끌게 하고, 그 고통을 더 증대시킵니다. 그와 같이, 옴도 자기 친구들이나, 자기 아내나, 영적으로 자기를 시험하려고 온 사람들에게 받았던 고통이 질병 자체로 받았던 아픔보다 훨씬 더 컸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내 몸이 치심을 받아 고통을 받을 때 뿐만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일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서운 원수가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결단코 긍휼어린 분이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될 때를 저는 영적 시험이라 하겠습니다.

옴의 친구들이 늘어놓은 모든 전제들은, 옴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옴 자신을 향하여 화목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은 게 큰 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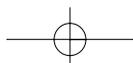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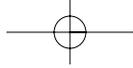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라고 생각하도록 욱을 설득하려는 경향이 깔려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갈등들은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당할 수 있는 모든 악과 역경들보다 참아내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고삐를 풀어 주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욱이 당했던 그러한 공약을 우리에게 퍼붓는 종들을 사단이 대동하도록 허락하십니다.

한 차원에서 보더라도 것처럼 의미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전체 쟁론 과정에서 욱은 선한 입장을 주장하는 반면, 그의 원수는 빈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더구나 욱이 선한 입장에서 서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개하는 논리가 빈약한 반면, 그의 원수는 빈약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유력한 논증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욱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쉽게 푸는 열쇠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욱이 선한 논리를 주장합니까? 욱은, 하나님이 언제나 사람들의 죄의 분량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심판을 내리시되, 그 심판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일을 하시는 까닭을 우리에게 밝혀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욱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실 때 언제나 그 사람들의 죄의 분량대로 하시는 게 아님을 완전히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욱은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 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증거를 마음 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욱이 자신을 하나님께 버림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욱의 논리가 빈약하게 역설되기는 했지만 선하고 참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욱은 여기서 스스로의 균형을 깨고 지나치고 과격한 전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는 많은 방면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사람들에게 어찌나 미움을 받았던지 그 자신이 하나님을 대





적하고 싶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선한 논리가 아주 보잘 것 없이 역설되고 있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빈약한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의 죄의 분량에 따라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름답고 거룩한 문장을 사용하며 말합니다. 그들의 전제에는 성령께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고 일축해 버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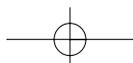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왜냐하면 그것은 순전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사용하는 전제들은 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논의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들의 죄를 논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리낌 없이 받아야 하는 교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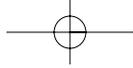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하나님의 진리를 악한 용도로 쓰지 말라

이 사람들은 욕이 절망에 빠져 완전히 자신을 망케 하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로써, 좋은 기초를 얻었을 때 그 위에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하는지 숙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고전 3 : 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교훈 위에 교회를 세워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것처럼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집을 지을 방도를 숙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 뒤에 올 사역자들은 한결같이 짚이나 나무나 가치 없는 재료를 갖고 집을 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좋은 기초’가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선하고 의로운 기초 위에 세워지려면 각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함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의 사악함을 우리가 다 체험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선하고 의로운 입장





을 부패시키기보다 더 쉬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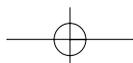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의 입장이 선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벗어나,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가감없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단순히 따르는 것을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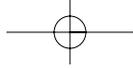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우리는 것처럼 쉽게 넘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입장에 서도록 하셨을 때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한정해 놓으신 범주를 벗어나지 말게 해 주십사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악한 용도로 쓰지 말라는 권고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모독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거룩한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부패시켰고, 거짓되이 남용하고 있습니다. 또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진리를 악한 목적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선한 자를 어렵게 하거나, 악한 것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받기를 배워야 합니다.

가장 예리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흔히 자신을 방임해 두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지식을 거만하고 악하게 남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영망으로 만들고 결국 자신들을 속박시키고 맙니다. 세상이 그러한 악에 젖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욥기는 구원의 교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의 거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의도하신대로 다시 말하면 정결하고 순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요약적으로나마 관찰해야 하는 요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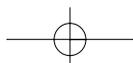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이제 욥기가 무엇을 다루는지 이해하였으니, 욥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더 상세하게 추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간단히 언급했던 것을 욥기의 진술의 순서에 따라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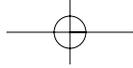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욥이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정확히 알아낼 수도 없고, 또한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고대(古代)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심지어 욥기는 모세가 썼다고 추측하기도 했으며,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욥기를 실례로 들어 주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순전히 행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했다는 것이지요. 은혜의 표지(標識)가 없는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인 바로 이 사람이 자신의 행실을 사람 앞에서 것처럼 잘 지킨 것을 보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의문에 붙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책을 쓰도록 하신 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며 할례의 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의심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앎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더 조심스럽게 지킬 이유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열방 가운데서 불러





모으신 특권을 주셨으니, 그들은 마땅히 자신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서(14 : 14)를 통해서도, 욥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엿보게 됩니다. 1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義)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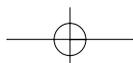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버려졌던 뿌리에서 돌아난 한 거목, 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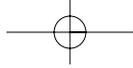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여기서 선지자는 세 사람의 이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하였듯이 그 세 사람들은 유대인 가운데서 매우 잘 알려진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 나라에 속한 이 사람이 것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한 것을 보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교리를 어떻게 지켜야 마땅한지를 인식할 거울과 본으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욥이 우스 땅에 살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이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애가(4 : 21)에서 우스라는 말을 써서 에돔의 지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할례를 받았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기에 더 이상 언약의 표지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욥이 우스 땅에 있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에돔 사람, 다시 말하면 에서의 혈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말 1 : 2).

비록 에서와 야곱이 한 태에서 난 쌍둥이 형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자신의 기뻐하심을 따라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를 버려 그와 그 모든 후손들을





저주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그것을 그러한 방식으로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것이 그들의 인품 속에 들어 있는 어떠한 존영 때문이 아님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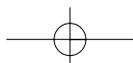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장자권(長子權)을 가진 야곱의 형을 버리셨고, 큰 자보다 작은 자를 선택하신 것을 보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비록 예서의 혈통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가 얼마나 순전하게 살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보게 됩니다. 정직하고 공평한 인간관계에서 뿐 아니라, 우상이나 불신자의 미신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종교를 가짐으로써 순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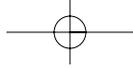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욥’이라는 이름에 대해 말하자면, 사람들이 그 이름을 ‘우’ 또는 ‘우짚는’이라는 식으로 번역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적의의 사람’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그가 미워했다는 말이 아니라, 어느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사는 고장이 명시되어 있고, 이름이 적혀 있으니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여기 욥기에 기록된 내용들도 그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논쟁이 사람이 꾸며낸 것이라고 생각지 않기 위함이며, 어떤 가명(假名)을 써서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일어난 것처럼 꾸민 이야기로 보지 않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에스겔의 증거와, 욥이 참된 실존 인물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야고보 선지의 증거를 제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역사가 그 점을 증언할 때, 성령께서 것처럼 특별하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을 묵과해 버릴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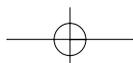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이방인의 발에 숨겨 놓았던 한 씨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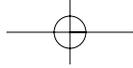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우리는 더 나아가 그 시대상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참된 종교를 알지 못했었지만, 오늘날보다는 심지어 교황제도 하에서보다는 훨씬 더 깨끗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때부터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했으며, 전혀 더러움이 없는 제물들을 드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 당시 세상 사람의 태반이 많은 오류에 휩싸여 있었고, 거짓되고 악한 환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만한 얼마간의 적은 씨앗을 보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진리 아래 보전받으며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세우시기를 기다렸던 자들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 백성, 소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사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육이 그러한 시대에 살았다는 것은 참으로 믿을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이후에 나타난 형태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든지 다 죽어야 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이 남자가 태어나거든 누구든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느 정도의 극한 상황에 처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마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대적하는 원수들과 큰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였습니다. 성막(聖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때 외면적으로 보이는 교회 형태를 아직 세우시지 않은 채, 언제나 이방인들 사이에 얼마의 씨를 남겨 농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교도들처럼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욥 한 사람만으로도 한 나라 전체를 재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노아도 세상을 정죄(定罪)하였습니다. 노아는 언제나 순전하게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물론 그 밖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었고, 자기들의 미신에 팔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때, 노아는 불신자들과 패역자들을 정죄하는 온 세상의 재판장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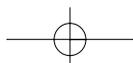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하나님의 긍휼의 그늘에 피해 들어온 자가 순전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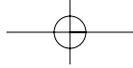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순전히 섬겼던 욥은, 잘못된 종교에 빠져 있는 즉, 우상숭배와 많은 오류와 악행으로 가득 차 있던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정죄가 선포된 것은, 그들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공경받기를 원하시는 분인가를 알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악인들과 불신자들이 핑계드릴 수 없도록 이 점을 고려하셨습니다. 이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고대 조상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을 따를 몇몇 사람들이 존재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이 욥에 대해 말하듯이, 욥도 바로 그러한 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진술은, 그가 얼마나 깨끗이 하나님을 섬겼으며 정직하게 행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그는 순전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순전한’이라는 말은, 그 사람 속에 거짓이나 외식이 하나도 없고, 겉과 속이 동일한 경우에 쓰여지는 보편적인 용어입니다. 또한 자기의 속 마음을 가리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감정을





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보이며, 다만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기를 추구하는 경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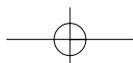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그 말은 헬라어나 라틴어에서 ‘온전한’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온전한’이라는 말은 후세 사람들이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순전한’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전한’이란 말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 모르는 무지한 많은 사람들이 “온전하다 불리우는 사람이 있으니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 자신을 완전케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언제나 필요로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희미하게 흐려 놓았습니다.

가장 정직하게 행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화로 피해 들어왔습니다. 만일 그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다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자들이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했지만, 그 말을 정반대의 의미로 이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했듯이) ‘순전한’이라는 말을 쓰기로 합시다,

여기서 옳을 ‘순전한’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외식이나 거짓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순전함의 덕행과 반대되는 악을 성경은 ‘이 마음과 저 마음’,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 먼저 이 어휘가 옳에게 쓰여진 것은 그가 깨끗하고 청결한 생각을 가졌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기웃거리리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자신을 전부 드러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원하는 만큼 이 목표에 도달할 정도로 순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나 여전히 절뚝거리면서 가는



사람은 언제나 약하고, 다리를 끌며 자기들의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죽을 몸에 둘러싸여 있을 동안에는 역시 그러합니다.

참 정직은 안과 밖이 같이 청결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비참에서 우리를 건지실 때까지는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이 온전한 순전을 이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모든 위선과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그 외에도, 참된 거룩은 안에서부터 시작함을 주목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가장 훌륭한 모습을 보이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잘 통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솔직성과 순전성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샘이 깨끗해야만 거기서 나오는 물줄기도 깨끗하게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이 깨끗할지라도 샘이 더러우면 물은 여전히 쓰거나, 아니면 다른 악한 부패의 요소가 그 물에 섞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서는 신령과 마음의 진실함을 통해 예배받고 싶어하신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5:3)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영역자<英譯者> 생각으로는 칼빈이 예레미야 3:10과 요한복음 4:24를 뜻하는 것 같음)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옳을 ‘순전한 사람’ 이라고 말한 다음에 ‘정직한 사람’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성은, 그가 영위했던 삶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성령께서 맨 먼저 심어 놓은 이 뿌리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따라서 옳이 자기 마음을 정직

하고 온전하게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의 삶은 청결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을 해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귀찮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을 속여 빼앗거나,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속 마음과 외면적인 모습이 서로 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외면적으로는 악을 행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럴 듯한 외모를 잘 드러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 있는 뿌리를 시험해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외식과 꾸밈이 있다면 그러한 외면적인 아름다운 모습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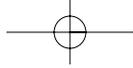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참된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눈과 손, 발과 팔, 그리고 다리가 다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 속의 순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5:25)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자가 바로 외식자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큰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삶을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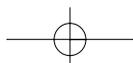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위한다는 것이 아무 소용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신지 생생히 보여 주어야 한다. 만일 우리의 손이 절도나 다른 악행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거나, 우리의 눈이 악에 홀리고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탐함으로 오염된다면, 또는 우리의 발이 교만과 허망으로 말미암아 악으로 치달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악과 부패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이 발이나 손, 눈이 저절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영이나 마음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나온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마음과 행실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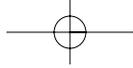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본문은 말합니다.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다시 말하면 그는 이웃들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았으며, 자기의 특별한 유익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온 세상에 대해 공평성을 유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국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증험하고 싶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한다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심지어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 주듯이 서로 각자들을 향해 성실하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증거를 내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는 말만으로 행실을 판별하고 그 행실을 유지하게 된다면, 큰 열심을 낸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이웃과 관계하자마자 그들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러한 이익을 추구할 힘이 있을 때 자신들을 제어하는 양심을 전혀 가





지지 않고 자신들을 기만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자기들의 이익과 유리한 조건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외식자들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아름다운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마음은 부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독소만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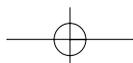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어째서 그렇습니까? 마음이 열려 있다면 정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의 생각이 깨끗하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간의 선을 도모하여,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공평의 원리를 삶의 원칙으로 삼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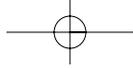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각자의 기능은 공동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주님께서서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욕을 칭찬하면서, 욕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할 뿐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직하고 순전했다고 선언하실 때, 정죄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선언하시는 정직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사취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모든 사람들은 정죄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욕이 사람들 중에서 정직하고 공평하게 행했다고 칭찬받는다라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 없이는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생각할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한 이웃에게 선을 행하거나, 각자의 선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덕행을





가지고 있다 해도, 자기 본성을 따르는 자는 자기 사랑에 사로잡히고, 야심이나 다른 생각의 충동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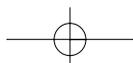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든 덕의 모습은 그렇게 해서 썩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는 이러한 정직성을 가질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존귀케 하는 것은 구별되는 요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돌판에 그 두 요점을 묘사하도록 하심으로써 자기 율법 속에서 그 두 요점을 구분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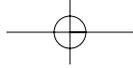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그러므로 ‘정직’이라는 말을 우리 앞에 제시함으로써 성령께서는 욕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행실을 가졌는지 선언하고 계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속에 있는 종교를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선하게 통제하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생각해야 한다는 권면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마땅한 충성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고,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며, 그리고 공평과 정직으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허망한 생각만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는 아무 흠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무시하신다면, 모든 사람이 자신을 크게 여기는 것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이웃을 의식하라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움뿐입니다. 누가가 진솔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눅 16:15) 그러니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않은 채 이웃들만 의식한다면, 결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영위할 수 없음을 주목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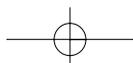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어째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예롭게 하기 위해 지음 받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실 수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을 알아보고 합당한 것을 당신께 드리는 이성적인 피조물들을 갖고 싶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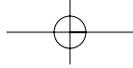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그밖에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할 때, 그 말이 노예적인 무서움을 뜻하지 않음을 주목해야 합니다.(흔히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상전이시니 그가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할 분으로 알고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확실히 우리는 하나님만을 영예롭게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만을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를 인정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속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속성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를 보전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시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성애적인 자애로움으로 나타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에게 합당한 존귀를 드리고 각자 모든 범사에,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배우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고 주관하는 상전권과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방면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신앙의 모든 요소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배와, 피조물들이 조물주께 드릴 충성이 다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정로를 벗어나 치달려가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매우 탁월한 덕행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세상의 가장 악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간다 해도 마땅한 바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힘쓰지 않는다면, 어떤 구실도 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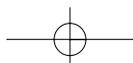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이 점을 잘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역경 중에 있으면 여러 가지 의무들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핑계달 구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환경 속에서 부패되거나 이리 가운데 찢김을 받았다면 그것은 무방하여,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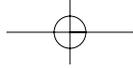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옳은 하나님을 경외키 위해 악에서 떠나려 투쟁한 사람

그러나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묘사된 옳은 그 정반대입니다. 그가 어떤 나라에 살았습니까? 그가 산 나라는 유대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도 살지 않았습니 다. 또한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오염된 곳, 완전히 부패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지켰습니 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악독과 패륜과 탈취와 같은 그런 류의 일에 치달려갈 때에도 그는 자기 이웃들에게 순전하게 행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 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며, 권면을 받고, 넘어질 때 바로 세워 주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순전한 자세를 지킬 것을 우리가 생각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로 더 큰 수치를 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 점을 주목합니다. 그러니 여기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정신차리고 주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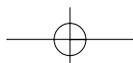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이제 결론으로 우리는 여기 본문에 부연된 말씀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악에서 떠난 자더라”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들던 모든 난관과 투쟁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욥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방종한 생활을 했다면, 전적으로 악에 매인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것임을 욥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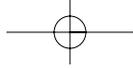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전하고 정직한 생활을 할 때, 많은 투쟁을 겪어야 했으며, 그로 하여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썩은 것들을 추구하도록 촉구하는 마귀의 공약을 받았습니 다. 그러나 그는 악에서 떠났습니 다. 다시 말하면 뒤로 물러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악들을 봅니다. 또한 정직함과 순전함을 가지고 많은 경멸자들과, 지옥에서 올라온 불인두와 같은 방탕꾼들과, 무섭게 모든 것들을 오염시키는 자들 속에 섞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내보여야

우리도 즉시 방탕에 빠지고 싶은 유혹을 주는 큰 더러움과 모든 류의 추악함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악에서 물러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본을 따라 그러한 모든 악의 공약에 맞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악과 부패가 행세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불가불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악에 오염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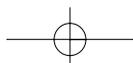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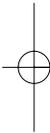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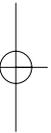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이리들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함께 짓어야 한다고 하는 식으로 말하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는 욕의 본을 따라서 악에서 떠나라는 충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앞에 놓을 수 있는 모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완전히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대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흠에서 정결케 하시도록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더러움과 때에서 우리를 온전히 빼내어,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있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마땅히 마음에 두고 기뻐해야 하는 그 영원한 행복의 참여자가 되게 하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보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 개혁주의 설교자 시리즈 8

신앙 세계는 천국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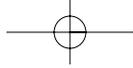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히 11:13~16, 33~40)



신앙이라 말할 때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가 되시므로 만물이 있기 전에 살아 계셨고 만물이 없어진 후에도 살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신 실존이심이 옳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체질세계(體質世界)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체질 세계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체질 세계가 아니시지만 체질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체질 세계뿐 아니라 영의 세계를 지배 하십니다. 영의 세계도 영원한 세계임이 옳습니다. 그곳은 죽음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의 세계를 지배하십니다.



1. 신앙 세계는 기사와 이적이 있습니다.

신앙 세계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졌습니다. 물이 벽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의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널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사실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으로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연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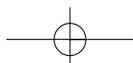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니다. 그러나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습니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영으로 취급하실 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으로 취급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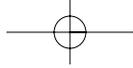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천국에서는 물을 건너기 위하여 배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배타지 않고 육지처럼 건너게 된 것이 천국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풀무불에 들어가도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타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에 타지 않은 것은 천국의 세계를 보여 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사람이 불에 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아도 사자에게 먹히지 않았습니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영으로 취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없습니다. 분명코 이 모든 기사는 신앙 세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신앙 세계는 천국을 언제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신 일은 천국을 보여 줍니다. 천국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먹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입기 위하여 수고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쳐 주심은 천국을 보여 주심입니다.





다. 천국은 병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나 고통하는 일이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이러한 이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적은 천국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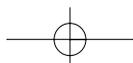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보여 줍니다.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 이적을 부인한다면 천국을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증명은 신앙 세계가 어떠한지를 보여 주는 것이니 신앙 세계는 결국 천국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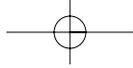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농사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고 그들은 길쌈하지 않았어도 옷을 벗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 세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곧 천국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농사나 길쌈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인생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동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을 가진 인생을 대하실 때 영으로 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를 이적과 기사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신앙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2. 신앙의 세계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죄를 지은 사람이나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나 다 같이 살만큼 살다 갑니다. 범직한 그대로 살아도 고통을 당하고 회개한 사람도 다 같이 고통을 당하는 세상입니다. 아니, 오히려 죄를 범한 사람이 도리어 잘 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도리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죄에 대한 문제가 무슨 문제될 것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다 죄 없이 함을 받기 원하고 죄 짓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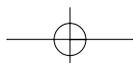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죄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개는 사나운 이빨로 물어뜯은 죄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인생에게는 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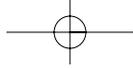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하나님은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 없이 함을 받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인생의 죄를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므로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가 있어도 고통을 당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도 고통을 당하는 세상이 전부라면 구태여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죄 없이 함을 받아서 죄 없는 영혼 세계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 세계이니 천국입니다. 천국은 죄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죄 없이 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죄 짓기를 싫어합니다. 죄를 두려워합니다. 양심상으로 죄를 범하면 고민합니다. 죄를 범하면 고통을 느낍니다. 누가 보는 이 없어도 죄를 범하고 나면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양심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에 대한 문제는 체질 세계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 세계의 문제임을 보여 줍니다.

인생이 죄를 범해서는 안되며 죄를 범했을 때 사유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코 영의 세계를 보여 주는 문제입니다. 만일 천국이 없다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이 있습니다. 죄 없이함을 받기 원하는 그 신앙의 세계는 천국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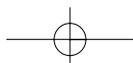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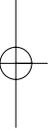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은 영혼이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생은 죄를 두려워합니다. 죄 없이 함을 받기 원합니다. 천국이 없는 신앙생활은 허무하고 슬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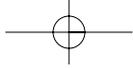




(결론) 신앙생활의 모든 일들은 천국을 보여 줍니다. 신앙 세계에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적도 있습니다. 천국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불에 타거나 물에 침해 되지 못합니다. 영의 세계에는 병도 없고 아픔이나 죽음이 없습니다. 신앙 세계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생활을 보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죄 문제를 해결시켜 줍니다. 인생은 누구나 죄 짓기를 싫어하고 죄 없이 함 받기를 원합니다. 왜 이러한 세계를 원하는 것입니까? 이 문제 해결은 신앙 세계 밖에서는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신앙 세계 안에서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천국을 보여 줍니다. 천국은 무죄한 곳입니다.(1969. 12. 07)





개혁신학 산책 Walking with Reformed Theology

최만수 | 개혁주의 구약성경 해석과 적용

성희찬 | 교회법과 정치





개혁주의 구약 성경 해석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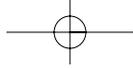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이사야 60:1~9 읽기를 통하여

들어가면서

개혁주의 전통은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 가운데 서 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은 정확무오하며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이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인간 저자에 의하여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용이하고 간결하게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읽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 과, ‘문법적-문예적 맥락’, 그리고 ‘신학적인 내용’ 을 살펴서 해석하고 독자의 삶에 적용을 하여야 한다.¹⁾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사야 60:1-9을 개혁주의 구약성경 읽기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적용하고자 한다. 선택된 본문은 많은 비평학자들에 의하여 선지자 이

1) 역사적-문법적-신학적 해석 방법은 전통적으로 개혁주의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지향하여온 방법이다. 이에 대한 기초적인 확인은 L. Berkhof의 성경해석학(1965)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일반 해석학적 이론들의 발전으로 인하여 그들의 성경 해석에 대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에 대한 이해가 주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Tremper Longman III(2002)은 성경해석의 문법적인 측면에서 문학적인 측면을 함께 살필 필요성을 알려준다. 이런 필요성은 김지찬의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구약 역사의 문예적-신학적 서론* (2006)에서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야가 아닌 익명의 저자(들)의 글이라고 주장되지만,²⁾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보았던 하나님의 계시(יְהוָה 이상, vision)이다. 게다가 그 계시 속에서 주어진 장차 이루어질 -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맞이할 -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의 첫 단락이다.³⁾ 마지막으로 본문은 구원과 복에 관한 종말론적 그리고 신학적 이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개혁주의 성경읽기 관점에서 이사야서 60:1-9의 역사적 배경과 문법-문예적 이해 그리고 신학적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난 후 우리는 본문에 대한 결론적인 적용을 시도하고자 한다.

1. 본문의 역사적 이해

이사야 60:1-9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선행하여야 한다. 이는 누가 저자이며 그리고 그 기록의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에서 출발을 한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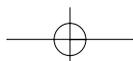
1.1 이사야의 저작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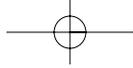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이사야 60장 1-9은 주전 8세기 예루살렘에 거하였던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2) 비평학자들은 이사야 56-66장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아닌 40-55장을 기록한 어떤 한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보고 "제 3 이사야"라고 명명을 한다. 이에 대하여 지지하며 "제 3 이사야"라는 이름으로 주장하는 최근의 한국 경우는 서명수(2003)에게서 볼 수 있다.

3) 이사야 60:1-9는 하나의 의미 단락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한 것은 아니다. 학자에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는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1-3절을 시적인 소개 부분으로 그리고 4-9절을 세계의 부와 재물과 함께 돌아오는 시온의 아들과 딸들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Childs(496)는 1-9절을 하나의 의미 단락을 묶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뻐하도록 도전받는 시온"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로 보고자 한다.

4) 본문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저자의 의도와 저자의 기록의 역사적 배경을 확인하는 작업이 된다.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성경 저자와 그의 배경에 대한 신뢰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성경 자체는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인간저자와 그가 다루는 역사의 내용 가운데 주어진 의미를 가지고 있다(벤후저, 420-431). 그래서 성경해석자는 성경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본문자료의 고유한 의미를 찾아야 한다(Graeme Goldsworthy, 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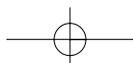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터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사야서의 표제와 이사야의 소명기사에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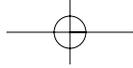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본문의 저자가 주전 8세기 예루살렘의 이사야라는 사실은 저자를 나타내는 표제에서 분명하여진다. 일반적으로 표제는 구약 예언서에서 누가 저자인지 알려주는 분명한 표식이다. 예레미야 아모스 요나 학개 스가랴 등은 그 분명한 예들이다. 이사야서에서는 1장 1절 “유다왕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에서 이사야 성경 전체가 주전 8세기 이사야 선지자가 본 이상의 책으로 분명히 뜻을 박고 있다. 이 외에는 이사야서 전체에서 다른 저자를 언급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⁵⁾ 이는 주전 8세기 중반에서 7세기 초반에 활동을 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의 저자임을 알려 준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미래인 주전 5세기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이상을 본다(사 6장).⁶⁾ 이사야는 웃시야 왕의 죽는 해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았다. 첫째로, 이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뵈는 체험을 한다(사6:1-5). 이 체험에서 그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된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있을 것을 알게 된다(사 6:9-12).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남은 자”들로 인하여 새롭게 회복될 것을 알게 된다(사 6:13). 이런 그의 이상체험은 이사야로

5)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는 이름은 이사야서에서 1:1을 포함해서 총 16번 나타난다: 1:1; 2:1; 7:3; 13:1; 20:2, 3; 37:2, 5, 6, 21; 38:1, 4, 21; 39:3, 5, 8.

6) 이사야서에서 저자를 알 수 있는 소명기사는 6장에서만 주어진다. 많은 역사비평가들은 40:6-8을 다른 선지자의 소명 기사로 이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비평학자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최만수(2005: 35-37)을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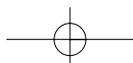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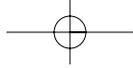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하여금 시대를 뛰어 넘는 후대의 이스라엘에 관한 일들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2 역사적 배경

이사야 60:1-6은 바벨론 포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에 대하여 들려준다. 이사야는 기원전 701년 앗수르 왕 산헤립의 침입으로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는 비참한 역사적 상황을 경험한다(왕하 18:23 참조). 그런 가운데 그는 이스라엘의 불경건과 배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임을 선포한다. 실재적으로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폐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기원전 538년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대하 36:22-23; 스1:1-4; 6:3-5)으로 5만에 이르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미래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되었다.

한편 이사야 60:1-9절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현실은 어렵지만 반대로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시대일 것임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536년에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은 황폐하였고 성전은 무너져 있었다. 그런 여건 속에서 이스라엘은 고레스 왕이 내어준 성전기물들과 각종 예물들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나(스3장) 주변의 시기(스 4장)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들(학 1장)로 공사는 14년 동안 중단되었다. 그러나 521년 다리오왕 때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독려하심으로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될 수 있었다(스5:6-6:18).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졌음에





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삶은 변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바라보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꾸어 놓길 기대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된다.

요약하면, 본문은 주전 8세기에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리고 본문은 이사야가 살아가는 시대의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거주하고 있을 미래의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말씀이다. 그 미래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좀 더 은밀히 말한다면 성벽)을 세워 나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2. 본문의 문법적-문예적 특징: 장르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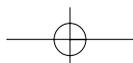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이사야 60:1-9는 그 자체에 각인된 문법적-문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⁷⁾ 일반적으로 (문법적-)문예적 특징은 주어진 본문의 장르와 구성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본문이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한 예언적 말씀인 것과 동시에 그 내용이 장차 다가올 청중인 미래의 이스라엘에게 읽힐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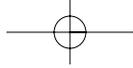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2.1 장르⁸⁾

기본적인 문학양식으로서 이사야 60:1-9는 예언적 본문이다. 이미 역사적 배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문은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행할 일에

7) 성경 본문에 대한 문법(문예)적 특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비평학자들처럼 문헌이론에 함몰되어서 성경본문의 의미를 “미학적 의미”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성경본문 속에 있는 문학적 기능들을 통하여 본문의 역사적-신학적-교훈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본문 분석의 실례를 위해서는 룡벤(2002, 109-214)을 참조하라. 그리고 본문의 문법적 특성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본문 분석의 실례를 위해서 이학재(2008, 34-64)를 참조하라.

8) 장르는 성경본문의 의미를 찾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벤후저(2003, 553)는 장르 이해가 저자 중심의 성경 신학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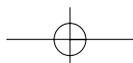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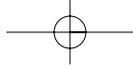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대한 예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명령의 임함에서 알 수 있다. 1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에서 보면 마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이었다. 이는 동일하게 4절에서도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적 계시가 주어진 것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발언 “여호와의 말씀이다” 혹은 예언 전달자의 형식으로 사용되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형식구가 사용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과 위임 속에서 본문이 말하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야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으로 선포하고 있다.

더욱이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것을 촉구하는 형식구를 사용함으로써 이 계시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공개적으로 선포되었음과 그의 청중들의 관심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본문은 들음의 초청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 둘째로 본문은 수신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명령은 여성복수형을 사용 한다. 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청중들이 이스라엘이 들어야할 것에 대한 예고 등의 요소가 들어있다. 열방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재물들이 주어질 것을 알게 된다.

더욱이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파송이 있음을 알게 한다. 본문에서 사용된 명령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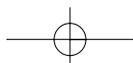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면서 그들을 파송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위엄을 나타내는 명령으로 되어 있다. 1절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4절의 “네 눈을 들라” “사방을 보라”는 모두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의 명령형이 앞서 나온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에서 이는 확연히 알 수 있다. 게다가 이곳에는 예언적 명령의 수신자인 목적어(수신자)와 전달내용이 뒤따라서 주어지는 형식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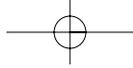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2.2 본문의 구성

본문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읽히고 또한 그 자체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위치와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여야 한다.

2.2.1 위치 - 전체적인

이사야 60:1-6은 회복될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의 권고가 주어진다. 본문은 그 주어진 위치와 그 자체의 구조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본문은 이사야서 전체에서 보면 이사야서의 마지막인 3번째 부분에 속한다. 이사야서는 역사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크게 3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부분인 1-39장까지에서 이사야서는 유다 왕 웃시야부터 시작하여 히스기야까지 곧 기원전 8세기를 묘사한다.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세상의 권력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징계/심판이 선언된다. 둘째 부분인 40-55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약속 곧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에 대한 선포가 주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인 56-66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사야의 환상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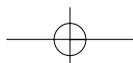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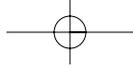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사야 56-66장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나라와 왕들을 향한 빛의 사명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사60-62장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A-A')B-B')C-C')D의 계단식으로 전개 된다(목회와신학 편집부, 2008: 363).

- A. 이스라엘의 복에 동참하는 이방인들 56:1-8
- B. 윤리적 의의 필요성 (56:9-59:15a)
- C. 신적인 전사(59:15b-21)
- D. 세상의 빛으로서 예루살렘(60-62)
- C' 신적인 전사(63:1-6)
- B' 윤리적 의의 필요성(63:7-64:12)
- A' 새 이스라엘(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한 이방인들의 구원(65-66장)

A-A'에서 변화된 이방인들의 모습 곧 이스라엘의 복에 동참하여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그려진다. 그리고 B-B'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윤리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같은 민족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고리대금과 같은 문제가 일어날 것임을 알게 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해야함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에 C-C'에서 이스라엘에 신적인 전사인 여호와와의 인도하심이 주어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면 이제 D에서 세상의 빛으로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때 이스라엘의 새로운 미래/사명을 여는 첫 부분이 주어진 본문 60:1-9로 시작을 한다.





2.2.2 구조: 세부적인

본문 60:1-9가 가지는 구조는 3중 구조이며 이는 또한 세부적으로는 12중 평행(대구) 구조 즉 ABC[D]-A'B'C'[D]-C"DA"B"로 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마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일들을 단계적으로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재건을 이루실 일을 강조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A 일어나 빛을 발하라(1절)

B 오직 여호와께서 네(시온) 위에 임하실 것이며(2절)

C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3절)

D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7d)

A'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4절)

B'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라(5절a):

C'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5b-6)

D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7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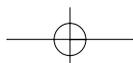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C" 계달의 양과 느바웃의 숫양이 다 네게로 모일 것이다(7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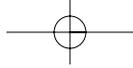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D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7d)

A" 날아오는 자가 누구인가? (8-9abc)

B"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9d)

ABC[D]의 계단식 구조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는 구절이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고리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발하면서 주어질 일들을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제시한다. 즉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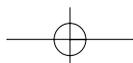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스라엘이 일어나 빛을 발하여야 한다(A).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하시며(B) 그리고 그 결과 나라와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아온다(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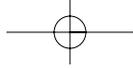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한편 A'B'C[D]는 (무리/물질 등이) “네게로(예루살렘으로) 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하나의 묶음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야 한다. 그 결과는 단계적으로 제시된다.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아들과 딸들과 함께 오는 무리들이 있다(A). 그런 일을 보는 이스라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B), 마지막으로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이 구체적으로 낙타와 금과 유황이 예루살렘에 주어진다(C).

마지막으로 A"B"C(D)는 본문의 결론적인 단락으로 “아름답게 하리라”(7절) “영화롭게 하다”(9절)로 같은 의미의 형상화를 한다. 예루살렘으로 “날아오는 자들”이 있으며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나아오고 있다(A).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B). 그 결과는 그들이 양과 숫양을 가지고 여호와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다(C).

게다가 ABC와 A'B'C' 그리고 A"B"C"는 평행적 대구형식으로 주어져서 A=A'=A", B=B'=B", C=C'=C"의 구조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예루살렘에 임하고 그에 대한 결과로서 세상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모습을 각각의 그룹이 단계적으로 설명하여 보여준다. 즉 결국 본문은 예루살렘/시온이 바벨론 포로 후에 회복되었을 때에 나라들과 왕들이 몰려오며 하나님께 예배/찬송을 드리는 장소가 될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소 단락들은 모두 D를 공유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결론을 가





진다. 즉 ABC>D, A'B'C>D, A"B"C">D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는 본문 이사야 60:1-9는 주어진 역사적 배경 속에서 더욱 분명해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회복된 예루살렘에 성전은 이미 완성 되어 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격려하시는 이유가 D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것임을 선포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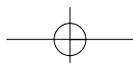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요약을 하면, 본문에는 문법-문예적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주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문 자체가 미래의 청중을 위한 예언형식으로 기록이 되었고, 또한 그 구성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회복될 이스라엘의 역할에 그리고 세부적인 전개에서도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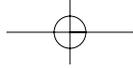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3. 본문의 내용: 신학적 읽기

이사야 60:1-9의 내용 전개는 이스라엘이라는 신앙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라 할 것이다. 이는 청중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체계나 혹은 공동체의 기대감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본문 자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신학적인 내용을 청중들이 알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제시한 내적(세부적) 구조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자 한다.

3.1 A-A'-A" 일어나 빛을 발하라(1, 4, 8-9abc)

1절의 “일어나 빛을 발하라”에서 명령을 받는 주체는 2인칭 여성단수로 표현되어서 이는 시온 곧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루살렘을 인격화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임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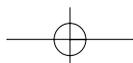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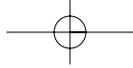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여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시온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인하여 이미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와 있음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시온/예루살렘에 이미 와있는 이 빛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는 1절 후반 절에서 답하고 있다. 즉 이유를 나타내는 ‘이느’ (‘יָנֵס’)을 사용하여서 빛을 발하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이느(왜냐하면)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네 빛” 곧 ‘여호와의 영광’이다. 그리고 빛/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르렀고” 와 “임하였음이니라”라는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시온/예루살렘의 빛 곧 여호와의 영광은 이미 시온에게 임하여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면 시온이 “일어나 빛을 드러내어 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1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명령은 4절에서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로 바뀌어 있다. 즉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눈을 들어 사면을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신의 주위를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그러면서도 감추어진 어떤 일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고 버거운 예루살렘의 삶속에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다. 바벨론 포로가 됨으로 인해 흩어졌던 형제와 자매 그리고 아들과 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사건이다. 이를 4b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이 그리고 딸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이방의 무리들에 호위를 받으면서 오는 것을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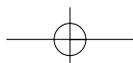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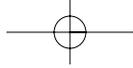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8-9abc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아들들과 딸들이 어떻게 올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주어진다. 8절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딸들을 데리고 오는 자(들)의 모습이 마치 집으로 돌아오는 자의 기쁨으로 가득한 것을 알려준다.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같이” 기쁨과 환희에 찬 즐거운 모습이다. 그리고 9a에서 그들은 다시스 사람으로서 배를 이용하여 올라온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여호와와의 예배에 참여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3.2 B-B'-B" 여호와가 임하신다(2, 5a, 9d)

왜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시온으로 오는 걸까? 이는 시온을 제외한 모든 곳이 공포와 악의 존재인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2a). 이 어둠은 1절의 빛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캄캄함”이란 두꺼운 구름을 표현한 것이다. 마치 어떠한 빛도 통과 시키지 않은 모습을 그리고 있는 영상적인 단어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은 두꺼운 구름을 뚫고 직접 시온/예루살렘에 임재하신다.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2b).” 하나님의 영광(הַכְּבוֹד, הַקְּבוֹד)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영광이란 단어는 부요함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에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부요함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시온/예루살렘이 세상의 피난처가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온에게로의 임재하심은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가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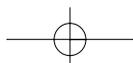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어지는가? 5a에서 잘 묘사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소망을 가지기에 어려운 여건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 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발하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제 그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게 되어 얼굴에 기쁨을 되찾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전율하는 것과 같은 강한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살아가야 할 땅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인 것을 알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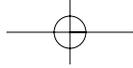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이는 분명하게 9d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 곧 시온이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이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루살렘을 다시금 자신이 거하는 집으로 삼으실 수 있음을 증거한다. 이는 분명 일인칭(“내가”)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었음을 알 수 있다.

3.3 C-C'-C" 모든 나라와 왕들이 시온의 빛으로 나아온다(3, 5b-6, 7abc)

본문의 명령 즉 “예루살렘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의 실천적 결과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 19:5-6절의 시내산 언약이 성취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됨을 선포한다.

3절에서 나라들과 왕들은 이스라엘/시온에게 임한 하나님의 빛과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다. 여기서 빛과 광명은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것이다. 이미 사 2:2-5절에서 이사야가 바라본 것처럼, 모든 나라와 왕들이 시온/예루살렘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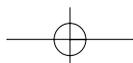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로 밀물처럼 밀려올 것이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온 땅의 통치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시온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온에 있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빛과 광명이 온 땅에까지 퍼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광명을 본 자들이 어떻게 시온/예루살렘으로 나아오는가? 그리고 와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5b-6절에서 ‘부와 재물’이 예루살렘/시온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함께 주어지는 것임을 알린다. 5b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에서 처럼 해로와 육로를 통하여 막대한 부가 예루살렘으로 집중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바다의 부”는 무엇인가? 이는 이사야 13-23장에서 두로와 시돈에서 처럼 해양무역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 재물을 뜻한다(목회와신학 편집부, 2008:366). 그리고 “이방나라의 재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바벨론과 같은 열방의 나라의 재물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시온/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쌓아온 재물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6절은 모든 나라와 왕들이 어떻게 시온/예루살렘으로 올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왔는지를 보여준다. 예루살렘에 가득한 “허다한 낙타”는 3절의 나라들과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사용한 수단이다. 그리고 낙타를 타고 온 족속 중에서 미디안과 에바(미디안의 아들 족속)는 트랜스 요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민족들이다. 그리고 스바는 아라비아 남부에 거주한 구스의 아들의 족속(창 3:10; 대상 1:9)으로, 또는 애굽과 에티오피아와 함께 아프리카 지역의 나라로 묘사되기도 하는 족속으로 오늘날의 예멘 사람들이다. 이들은 세상 끝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금과 유향”을 가져와서 하나님에게 예배/제사를 드리려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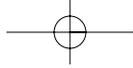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다. 게다가 이들 지역은 땅 끝이라고 할 수 있다. 땅 끝의 나라와 백성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의 중심인 예루살렘-이스라엘을 향하여 올라오게 되는 것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전에는 나라들과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에게 제사/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순례의 길을 의미한다.

3.4 [D]-[D]-D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7d)

그렇다면 본문의 결론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굳게 서고, 민족들과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하여 준다. 여호와께서 성전을 성전답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하여 성전이 지어진 상태에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다시금 분명히 선포되고 그 가운데 주께서 거하시는 것이다. 역대하 7:14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지라.”고 하셨다. 이제 땅의 어지러운 모습이 해결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다시금 선다. 이는 종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할 것이다.

요약하면, 본문은 자체에 가지고 있는 계시적-신학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의 빛을 발하는 일의 중요성이 잘 제시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명령이 단순히 명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대한 약속 즉 장차 포로에서 회복될 이스라엘에게 기쁨과 즐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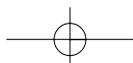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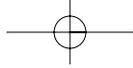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을 회복하실 것임을 알리고 계다가 그런 일의 결과가 시내 산에서 주어진 언약의 회복 즉 다시금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여호와와의 예배를 집행하게 될 것임을 알게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는 일이시며 하나님의 전 곧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임을 깨닫게 하신다.

결론과 적용

결론적으로 개혁주의 구약해석의 적용은 (구약)성경이 “지금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사야 60:1-9에서는 분명 하나님이 그 인간저자로서 직접 이사야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본문은 장차 회복될 미래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사야 60:1-9는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함에 초점이 있다. 이를 세 가지로 살펴보자.

첫째로 믿음의 공동체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어야 한다. 힘들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임을 알려준다. 모든 것이 어두움인 것처럼 보여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야 한다. 분명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창 15장), 시내 산에서 세우신 그 언약이(출 19장), 이제 예수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이사야 60:1-9에서 주어진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모습을 새 예루살렘/새 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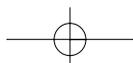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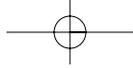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라엘로서 우리에게 제시된다.

둘째로,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한다. 세상적인 권세와 물질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이며 구원의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한다. 이미 교회의 머리되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 이는 가슴이 떨리고 전율하는 놀라운 소식이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에 대해, 이미 이사야는 7장 14절에서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하시고, 9장 6절에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선포한다.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로, 성도의 삶과 역할은 온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배에 인도하며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 마치 이스라엘/예루살렘이 빛을 발하므로 모든 나라와 왕들이 하나님에게 나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사야는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선포를 하였다. 그 계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사 66:18). 이제 그와 같은 일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주어진 그리고 새롭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오늘(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타날 것이다.





참고문헌

Berkhof, L. 윤종호, 송종섭 역. 「성경해석학」. 김포: 개혁주의 신행협회, 1965.
 Longman, Tremper III. 유은식 역. 「문학적 성경해석」. 현대해석학시리즈 3. 서울: 솔로몬, 2002.
 Vanhoozer, Kevin J. 김영재 역.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서울: IVP, 2003.

김지찬.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구약 역사서의 문예적-신학적 서론」.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목회와 신학 편집부 편. 이사야2: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How주석 24.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8.
 서명수. 「제3이사야: 사 56-66 주석적 이해와 설교적 적용」. 서울: 한들, 2003.
 안명준. “갈변의 신학적 해석학.” in 「신학적 해석학」. 서울: 이컴 비즈넷, 2005: 212-239.
 이학재. 「신지자들의 메시지」. 서울: 기쁜날, 2008.
 최만수. 「이사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서울: 그리스, 2005.

Calvin, John.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Trans. William Pringle. Vol. 4.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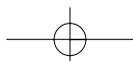
Childs, Brevard S. *Isaiah*. The Old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London: Leide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Goldsworthy, Graeme. *Gospel-Centered Hermeneutics: Foundations and Principles of Evangelical Biblical Interpretation*.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6.

Harman, Allan M. *Isaiah: A Covenant to be Kept for the Sake to the Church*. Scotland: Christian Focus Publishing, 2005.

Motyer, J. Alec. *The Prophecy of Isaiah: An Introduction & Commentary*.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93.

Oswalt, John N. *Isaiah*.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 Zondervan,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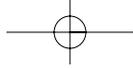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화평의 법으로서 교회법

1. 교회와 법

교회법¹⁾이 과연 가능한가, 이 주제는 시대마다 첨예한 주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라이프찌히 법학부의 법학자로서 독일법과 교회법을 가르친 Rudolph Soehm(1841-1917)이 주저 <Kirchenrecht:교회법, 1892> 제1권에서 설파한 핵심논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본질은 영적인 것이나 법의 본질은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법은 교회의 본질과 상충한다’(Das Kirchenrecht steht mit dem Wesen der Kirche in Widerspruech; Das Wesen der Kirche ist geistlich, das Wesen des Rechts ist weltlich). 그는 바울이 서신서에서 교회와 법을 서로 대조하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으며, 신약 교회는 모든 시대 교회의 모델로서 형식과 법과 조직이 없는 교회, 그리스도 자신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그의 성령의 은사로 모든 지체들을 인도하시는 교회, 성령의 은사와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Geistkirche, Liebeskirche)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는 일 세기 말에 종식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교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규정을 세우므로 ‘법의 교회’(Rechtsskirche)가 생성되었다고 하였다.

1) 본고에서 교회법, 교회정치, 교회질서라는 말이 섞여서 사용되고 있다. 이 모든 용어들은 각각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법의 경우에는 이신칭의를 통한 모든 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강조하고 있고, 교회정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교회질서는 구원의 질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화평을 위한 질서를 뜻한다. 교회헌법이라는 말은 미국의 영향으로 서 이 용어 안에 신조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래서 고신교회헌법을 보면 교리표준으로 웨스터민스터신앙고백,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이 있고 관리표준으로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지침을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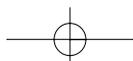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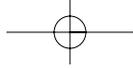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바른 질서와 법이 세워져야 한다는 원리가 축소될 수 없다(고전 14:40, 33. 골 2:5). 바울은 때로 명령의 형태로 교회에 지시할 때가 있다: παραγγελία(살전 4:2; 딤후전 1:18). διατάσσω(고전 7:17; 11:34; 16:1; 딤후전 1:5). 또 간접 명령의 형태로도 나타나기도 한다(고전 14:13; 28, 30, 35, 37). 상호 및 교회의 권징에 대한 규정도 볼 수 있다(롬 15:14; 골 3:16; 살전 4:18; 살전 5:11, 14; 갈 6:1-2).²⁾

장로교에서 성경과 신앙고백과 교회정치는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마틴 부셔와 요한 칼빈 등 개혁가들은 교회정치형태와 실재를 다룰 때 성경주해에서 출발하였고(예를 들어서 기독교강요 4:4:1, 4:5:10를 참고하라) 나아가 교회정치의 요소를 그들이 작성한 신앙고백서에서도 언급하였다(벨기에신앙고백서의 경우 27-32조항에서 교회정치와 관련하여 고백하고 있다). 즉 이들은 신앙고백이 교회정치의 내용을 주도하고, 교회정치는 교회를 신앙고백으로 향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교회론에서 출발하여 교회법으로 나아갔다. 따라서 장로교에서 첫째 정치원리를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칼빈이 주도하여 작성한 1541년의 <제네바교회정치>는 교회정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다음은 그 서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행정관들, 소의회와 대의회는 나팔 소리와 대형시계가 울리는 가운데 우리의 오랜 전통을 따라 시민들과 함께 모여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교리를 순수하게 유지하고 기독교를 보호하고 젊은이들을 신실하게 교훈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철저히 돌보기 위해서 병원이 세워져야 하는 일이라고 간주하였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생활의 정확한 질서와 규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니, 이러한 법으로부터 모든 사회적 계

2) H.N.Ridderbos, "Kerkelijke orde en kerkelijk recht in de brieven van Paulus" In: Auditu Verbi (Amsterdam 1965), pp. 197-198.





층이 자신의 맡은 직분의 의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정하신 영적인 통치가 우리 가운데 바람직한 형태로 도입되어 준수되는 것이 좋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도시와 영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비롯된 다음과 같은 교회 정치를 따르고 지킬 것을 제정하고 명령하였다”³⁾

교회정치에서 성경에 기반을 두는 칼빈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 (Ius divinum) 사상은 프랑스 교회, 네덜란드 교회 뿐 아니라 스코틀랜드 교회가 따르게 되고, 마침내 이 점은 모든 개혁주의 교회에서 신앙고백의 사항으로 채택되기에 이르게 된다. 특히 갈리안 신앙고백서와 벨기에 신앙고백서에서 칼빈의 표현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참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식대로 영적으로 통치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30조 교회의 영적 통치)⁴⁾

2. 교회법의 목적: 화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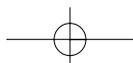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그렇다면 교회에 법/질서/정치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4장을 볼 때 교회법의 목적은 화평이라 할 수 있다. 특히 33절과 40절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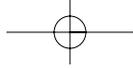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40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33절)

3) 원본은 P.E. Hughes가 번역한 *The Register of the Company of Pastors of Geneva* (Grand Rapids:Eerdmans, 1966)에서 볼 수 있다. 일부는 다음의 책에서 볼 수 있다: D.W.Hall & J.H.Hall ed., *Paradigms in Polity: Classic Readings in Reformed and Presbyterian Church Government*(Grand Rapids:Eerdmans, 1994), pp.140-141.

4) 갈리안신앙고백서 29조 역시 동일하다.





고린도교회는 특히 예배에서 무질서하였다. 교회에 품위와 질서를 요구한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요(οἰκοδομεω-3, 5, 12, 17, 26절을 참고하라), 화평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칼빈 이후 개혁교회나 장로교회는 40절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질서를 무시하는 재세례파의 신령주의 성격을 경계하면서 동시에 질서를 위한 질서, 규정을 위한 규정, 법을 위한 법을 주장하는 문자주의(formalism)에 대항하여 교회법의 목적이 화평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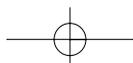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교회법의 목적이 화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격에 기인한다. 에베소서 2:14-17은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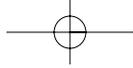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따라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화평으로 살아가며 또 세워져간다고 할 수 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토대로 주신 화평에 참여하는 교제이다. 교회법은 성도의 교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화평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칼빈 등 개혁가들은 당시 교회개혁이 교회를 '세우는 것'(οἰκοδομεω)으로 보면서 여기에 교회법을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겼다.⁵⁾

이 점에서 세상의 법과 교회법이 대조가 된다. 즉 세상의 법과 질서 역시 '의'(정의: Ius)를 말하지만 이는 정죄와 보응을 목표로 하는 반면, 교회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화평을 드러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5) W. van 't Spijker, "Kerkrecht en Gemeenteopbouw" In: *Vormingen en Verdieping* (Amsterdam: Buijten & Schipperij,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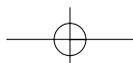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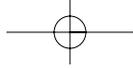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법’ (ius: right)은 법 이전에 ‘권리’를 가리키는데 즉 법적 관계, 법적 질서를 말하는데 왜냐하면 교회의 ‘법’ (권리)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획득하신 ‘의’ (義)라는 ‘특별 은혜’에서 나온 ‘법’ (권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법은 의인으로서의 신자와 교회의 권리를 가리키며, 은혜로 회복된 의/화평의 권리를 가리킨다. 이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법적 지위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교회법은 법이나 규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화평이 목적이 되어야 하며 목사가 교회법을 목회적인 시각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평의 복음을 교회에 설교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새 언약의 일군은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후 3장). 교회법이 하나님과의 화평, 성도 상호간의 화평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은 결국 화평의 복음을 설교하는 강단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약속하시고 선사하시는 구원은 결국 설교되는 화평이며, 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것이며 복음에 약속된 것이며 교회에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사는 교회에서 결코 이혼을 조언할 수 없다. 이혼은 화평의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교회에 성령의 선물로 주어진 성도의 교제에 문제가 생겨 원망이 나타났을 때 일곱 사람을 세워서 다시 화평을 이룩하는 것도 직분을 통한 질서의 목적이 화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직분자의 봉사는 바로 화평과 무관하지 않다.

이같이 화평은 교회법을 해석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교회법의 목적은 성도의 교제에 질서가 있게 하여 성도와 교회에 하나님과의 화평, 나아가 성도 상호간에 화평을 가져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법정의 진술이 타당할 때 교인과 교회는 거기서 안정과 화평을 얻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법 조항을 해석할 때 문학적 해석학, 성경 해석학, 역사적 해석





학, 구조적 해석학, 교의적 해석학 외에 교회법의 목적을 이루는 목적론적 해석학이 반드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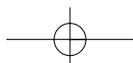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3. 화평의 법으로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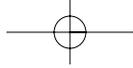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그렇다면 교회정치의 각 조항이 어떻게 화평의 법으로 실제로 기능할 수 있을까?

첫째 권징을 살펴보자. 권징을 시행하는 것은 거룩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며 교회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권징 시행은 범죄한 성도가 회개하여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화평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둘째 성례는 화평의 표로서 화평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성도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또 다른 성도 사이에 놓여 있는 법적인 지위를 확인하는 자리이며, 성찬은 화평의 확증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이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도가 함께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선사하고 약속하신 화평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여 한 상에 앉기 때문이다.

셋째 직분자의 심방 역시 그 성도의 화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화평의 복음을 집으로 가져가 권면과 위로, 때로는 책망을 통하여 전하여 그가 하나님과 성도 간의 화평을 누리게 한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혹은 여러 면에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성도를 집사나 권사를 통하여 돕는 것도 역시 화평의 복음을 실천에 옮기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도는 자기가 당한 난관으로 인해 자칫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그리고 성도 사이의 화평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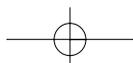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넷째 교단 안에 교회들이 연합하여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화평에 함께 참여하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시찰회를 통하여 개체교회를 시찰하는 것 역시 각 개체교회의 화평과 그 교회 지체들의 화평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 점에서 오늘날 시찰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노회와 총회의 역할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교회는 화평의 도구가 되어 온갖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화평을 가져다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같이 교회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선사하시고 복음에서 약속한 화평과 관련이 있으며,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세상에서 변호사는 빠져나갈 법의 구멍을 찾기 위해서 인간 애를 쓰지만 교회는 더욱 법을 가까이 하려고 한다.

참고문헌

-
- Bouwman, H., *Gereformeerd Kerkrecht I*, Kampen, 1928.
- Bronkhorst, A.J., *Schrift en kerkorde. Een bijdrage tot het onderzoek naar de mogelijkheid van een Schriftuurlijke Kerkorde*, Utrecht 1947. Diss.
- Hall, D.W., & Hall, J.H., ed., *Paradigms in Polity: Classic Readings in Reformed and Presbyterian Church Government*, Grand Rapids, 1994.
- Hovius, J., *Het verband tussen onze belijdenis en onze Kerkorde*, Sneek, 1962.
- Kamphuis, J., *Verkenning III: kerk en kerkrecht*, Goes, 1966.
- van 't Spijker, W en van Drimmelen, L.C (red.), *Inleiding tot de studie van het kerkrecht*, Kampen, 1988.
- van 't Spijker, W., Balke, W., Exalto, K., van Driel, L., red., *De Kerk*, Kampen, 1990.
- van 't Spijker, W., "Kerkrecht en Gemeenteopbouw" In: *Vormingen en Verdieping*, Amsterdam, 1995.
- Trimp, C., *Ministerium: een introductie in de reformatorische leer van het ambt*, Groningen, 1982.



교회개혁의 역사와 인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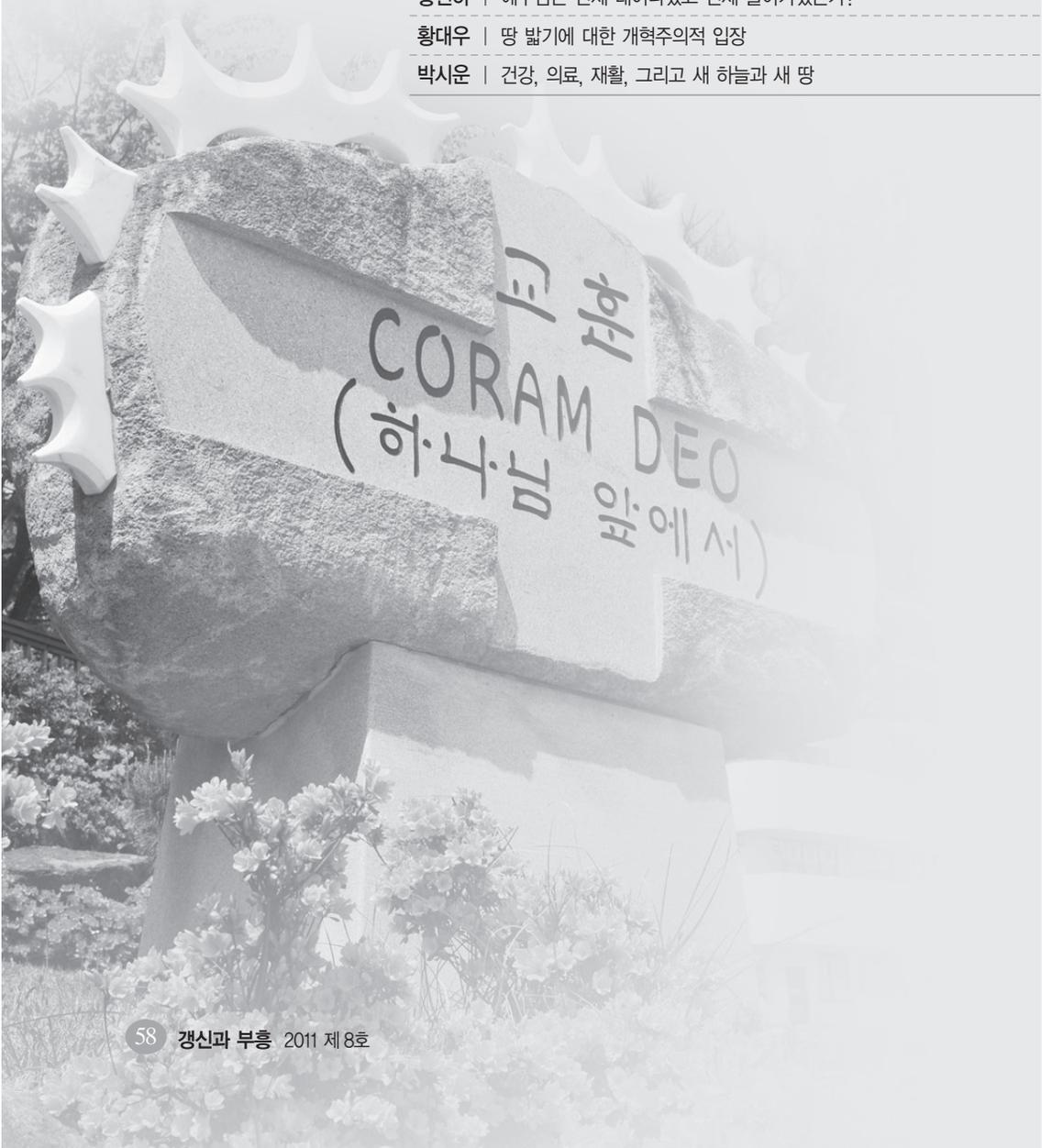
이상규 | 피터 왈도와 교회개혁

개혁신앙칼럼

황원하 |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고 언제 돌아가셨는가?

황대우 | 땅 밟기에 대한 개혁주의적 입장

박시운 | 건강, 의료, 재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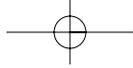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영광
CORAM DEO
(하나님 앞에서)



피터 왈도와 교회개혁

중세시대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프랑스 리옹의 부유한 상인이었던 피터 왈도(Peter Waldo, c.1140-1217)이다.¹⁾ 프랑스 보(Vaux) 지역의 도핀(Dauphine)에서 출생한 왈도는 젊은 시절에는 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그에게 있어서 물질은 풍요로운 삶을 위한 도구였다. 그러나 1173년 경 파티석상에서 한 동료가 급사하는 것을 목격한 후 생의 의미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한 신부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물었다고 한다. 이 때 신부는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소개해 주었다고 한다. “네가 완전해지고자 하거든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에 보화를 쌓을 것이니라.” 이 본문은 이집트의 안토니우스(250?-356?)로 하여금 수도운동을 시작하게 했던 바로 그 구절이었다. 하늘의 보화를 얻는 길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는 것”임을 깨닫게 된 왈도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스스로 가난한 삶을 살기도 다짐했다. 신자는 내세의 부요를 위해 이생의 쾌락을 거절해야 한다고 믿게 된 것이다. 사도적 청빈은 그의 이상이었다. 그는 이 정신을 일반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성직자나 수도사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이런 삶을 실천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런 삶의 방

1) 왈도는 보통 Valdes, Valdo(발), Valdesius, Valdexius 등으로 호칭되기도 했는데, 14세기까지는 그냥 왈도라고 했다. 그 후 베드로라는 의미의 ‘피터’를 더하여 ‘피터 왈도’라고 부르게 된다. 이것은 그가 베드로처럼 가난하게 지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도 베드로의 정신적인 후계자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서 당시 호화롭게 사는 교황들과 대조시켜 보려는 목적에서 이렇게 부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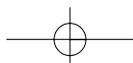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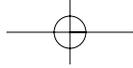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식은 세속에 물든 당시 교회에 있어서 일종의 쇄신운동이었다. 인간의 탐욕과 부의 추구에 대한 강력한 대안은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왈도의 이런 삶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겨나게 되자, 이들은 왈도파(Waldenses), 혹은 왈도파 사람(Waldensians)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삶의 방식을 따라 ‘리용의 가난한 사람들’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할 단체를 결성하였다. 1177년 무렵이었다. 왈도파 사람들은 성경을 암송하기도 했고 청빈한 생활을 추구했다. 왈도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역의 일환으로 성경의 필요한 부분들을 번역하도록 두 사람의 신부를 채용했다. 이렇게 한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부패는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그는 말씀은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해 주는 광명이라고 믿었다. 왈도는 성경과 기독교문서 등을 일반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프랑스로 번역하게 하고 이를 보급하는데 생애를 바쳤다. 그는 성경의 교훈처럼 전대나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들썩 짝을 지어 촌락이나 시장, 혹은 거리에서 전도하게 했고 월, 수, 금요일은 금식하게 했다. 이런 왈도파 사람 자신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맹세하지 않고 피 흘리는 일도 반대하였다. 교리적으로는 연옥을 부인하고 사자(死者)를 위한 기도를 반대하고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임을 주장하였다. 또 화체설을 부인하였는가하면 성자숭배도 반대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성경의 사상이었고, 일종의 중세 하에서의 개혁운동이었다.

왈도파 사람들이 지지를 얻고 세력을 확장해 가자 왈도파 사람들은 공인받지 않은 설교자라는 이유에서 리용의 대주교로부터 중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왈도는 “우리는 인간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행5:29)는 베드로의 말을 인용하여 이에 불복하였다. 왈도는 곧 대주교로부터 파문을 당했다. 1179년에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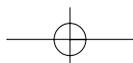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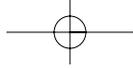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집된 제3차 라테란회의에서 왈도파는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었으나 월터 맵(Walter Map)이라는 달변가의 조롱을 당했다. 교황 알렉산더 3세는 이단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으나 이들이 평신도라는 점에서 설교권은 인정해 주지 않았고 감독의 지도에 순복할 것을 명했다. 이런 중에서도 왈도파는 지지를 얻었고 추종자들은 남부 프랑스와 독일남부, 그리고 알프스 산을 넘어 이탈리아, 스위스까지 퍼졌다. 그들은 행상으로 가장하여 성경을 비밀리 공급하였고 성경대로 사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로마 교황청의 계급 구조가 인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연옥, 미사, 화체설은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 세레시 십자가 표시하기, 유아를 봉헌하는 헌아식, 견신례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의 주장은 1220년에 작성된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왈도파 신앙고백서’에 잘 나타나 있다.²⁾

이들의 교회 정치관은 ‘교회의 권징’이라는 문서에 나타나 있는데, 교회의 직분을 장로(감독)와 집사 두 직으로 보는 2직분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직분을 계급적 구조로 이해하지 않았고, 모든 장로의 동등권을 주장했다. 정리하면, 왈도파 사람들은 사도적인 소박하고 청빈한 삶을 추구함으로써 교회를 정화시키고 오직 그리스도와 성경의 교훈에 따라 사는 삶을 주장한 것이다. 이런 왈도파의 주장은 교회 쇄신운동이자 진정한 교회 개혁이었으나 1184년 루시우스(Lucius) 3세에 의해 베로나 교회회의(Council of Verona)에서 이단으로 파문을 받았다. 그들은 심각한 탄압을 받았고, 알프스 산맥의 계곡들에 은둔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박해가 심해지자 가정 집에서 비밀 예배를 드렸고, 순회설교자들이 이들을 돌보았다. 13세기에는 박해가 더 심해졌다. 1229년 교황 이노센트 3세는 발렌시아교회회의(Council of Valencia)를 소집하여 왈도파가 교회의 권위에 도전한다 하여 이단으로 정죄하고 처형하도록 명했다. 1380년 교황 클레멘트 7세는 수도사를 동원하여 왈도파 색출에 나서 이들을 처형하였고, 148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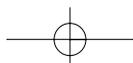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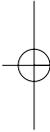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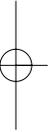
2) 왈도파 신앙고백서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14개 조항으로 된 것과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것이 있다.





교황 이노센트 8세는 18,00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왈도파를 진멸하고자 했다. 이때 100만명 이상이 처형되었다고 한다.

계속된 탄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왈도파운동은 면면히 이어져왔고, 16세기 까지 명맥을 이어왔다. 이들은 루터의 개혁을 지원하였고,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들 왈도파는 교회 개혁을 주장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한 점에서 개혁운동임이 분명하지만 이들 역시 중세 시대라는 그 시대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들의 구원교리에서, 그리고 청빈생활에서 고행주의의 흔적이 남아 있고,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적 한계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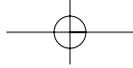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고 언제 돌아가셨는가?

-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기사에 대한 복음서 기사들의 역사적 신빙성 변호 -

서론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와 언제 돌아가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탄생 기사를 당시의 역사적 정황에 따라 구축해 보면 마치 두 복음서의 기록에 차이(충돌)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공관복음(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짜를 서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많은 비평학자들은 복음서의 역사적 신빙성(historical reliability)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우리는 이 글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기사에 대한 사복음서의 기록이 역사적으로 일치하며 따라서 성경의 무오성이 잘 유지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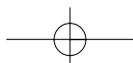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1. 예수님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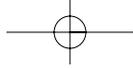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먼저, 예수님의 탄생 연도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것은 마태복음의 기사와 누가복음의 기사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1) '주후'(AD)의 기원

지금 우리의 햇수 계산 방식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원년으로 한다.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을 '주전'(Before Christ: 영어로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이라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를 '주후'(Anno Domini: 라틴어로 '주님의 해'라는 뜻)라 하여 햇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대 기술 방식은 주후 6세기 초에 로마에서 활동했던 수도사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Dionysius Exiguus)가 만든 것이다. 그는 신학, 수학, 천문학 등에서 뛰어난 학문적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주후 525년에 교황 요한 1세(523-526년 재위)가 그에게 부활절의 정확한 연대를 계산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연대기를 도입하였다.

사실 고대에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왕의 연호(무슨 왕 몇 년)를 사용하는 것이 관례였다. 당시 로마 제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 그들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주후 284-305년 재위)의 즉위 연대를 기원으로 하는 마르티르(Martyr)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기독교를 매우 심하게 박해했던 왕이었기에 교황은 그러한 왕의 연호를 부활절 연대 계산에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여 당시의 대학자였던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로 하여금 진정한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연호를 사용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이에 따라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는 로마제국의 기원 연도와 예수님의 생애를 비교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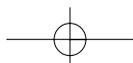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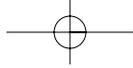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구하였고 이렇게 산출된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로마제국 건국으로부터 754년 후라는 것을 알았다(로마제국은 주전 753년 4월 21일에 건국되었음). 그리하여 그는 A.U.C.(ab urbe condita[도시(로마) 건설 이후]) 754년을 주후 1년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후대의 학자들은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잘못 계산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성경과 고대 문헌을 연구한 후에 예수님이 적어도 주전 4년 이전에 태어났음을 알았다. 즉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해는 A.U.C. 754년이 아니라 적어도 A.U.C. 750년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는 A.U.C. 750년을 주후 1년으로 계산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가 이러한 중대한 계산상의 착오를 일으킨 것이 후대에 사실로 드러나기는 했지만 후대의 사람들이 이 연대 시스템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했다. 모든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주후’ (AD) 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고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까닭에 오늘날까지 그냥 일반화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2) 성경의 기록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는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도를 추정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근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다. 마 2:1에 따르면 예수님은 헤롯대왕(Herod the Great)이 살아 있을 때 태어나셨다. 헤롯대왕은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주전 4년에 죽었다. 이는 역사가 요세푸스(Josephus)의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Antiquities, 17.6.4). 특히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헤롯이 죽던 해에 월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주전 4년 3월 12일에 실제로 월식이 있었다. 따라서 헤롯의 사망 연대에 대한 요세푸스의 기록은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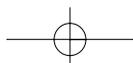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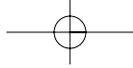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그러므로 예수님은 적어도 주전 4년 이전에 태어나신 것이 된다. 게다가 마 2:16에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헤롯 대왕에게 와서 이스라엘에 왕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전하자, 헤롯 대왕이 듣고 베들레헴에 사는 두 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는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이를 두 살 이하로 보았다는 뜻이다. 즉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그때로부터 약 1-2년 전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서는 주전 6-4년에 태어나신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2:22은 이때 예수님께서서 부모와 함께 헤롯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피신하셨다가, 헤롯의 아들로서 주후 6년까지 사마리아와 유다를 통치한 헤롯 아겔라오 왕 때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셨다고 기록한다.

그런데 눅 2:1은 예수님께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배경을 설명하면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Caesar Augustus, BC 31-AD 14년 재임)가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러한 호적등록령을 내린 것은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었다. 이어서 눅 2:2은 이 호적등록령이 구레뇨(Quirinius)가 수리아(Syria)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고 언급한다. 그런데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된 것은 주후 6년의 일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주후 6년 이후에 태어나신 것이 되어 마태복음의 기록(헤롯대왕의 죽음 이전)과 맞지 않게 된다. 단지 몇 년의 차이라면 모르겠지만 거의 10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하여 마태복음의 기록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누가복음의 기록이 옳은 것인가? 이러한 불일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3) 해결책

예수님의 탄생 연도에 있어서 마태복음의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차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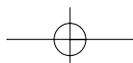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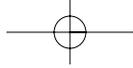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보이는 것은 비평학자들의 공격 표적이 되어 왔다. 그들은 누가가 마태의 기록(예수님이 헤롯대왕 때 태어난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눅 1:5을 볼 때 누가는 예수님께서 헤롯대왕이 살아 있을 때 태어나셨음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역사가로서 주의 깊게 모든 자료들을 검토한 후에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누가가(눅 1:1-4) 당시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역사를 몰랐을 리가 없다.

지금까지 이에 대하여 여러 해결책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한 제안들 중에서 가장 만족스런 것은 성경의 역사적 신빙성(historical reliability)을 주장하는 많은 보수적인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눅 2:2에서 ‘처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프로토스’가 잘못 번역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이 구절에서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first) 한 것이라’는 말은 원래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기 전에(before) 한 것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헬라어 ‘프로토스’는 ‘처음’이라는 뜻과 ‘전에’라는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전에’로 번역되어야 하며 그렇게 볼 경우에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주전 4년경에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었으며(누가는 이때의 인구조사를 잘 알고 있었다. 행 5:37) 이때는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기 전이었다.

게다가 주후 6년경에는 갈릴리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등록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때는 헤롯 대왕이 이미 죽고 헤롯의 세 아들이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이다. 당시에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고 유대는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다. 그런데 호적등록령의 목적은 세금을 걷는 것이었고 따라서 각 지역은 별도의 세금을 걷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갈릴리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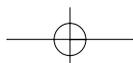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후 6년 이후에 태어나셨다고 보는 것은 정황상으로도 옳지 않다. 결국 우리는 마태와 누가의 기록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이들의 기록과 요세푸스의 자료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이 주전 6-4년 사이에 있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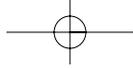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4) 그 밖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확한 날짜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 날짜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이미 알려져 있듯이 이 날은 고대 로마제국이 임의로 정한 날짜일 뿐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정황을 통해서 추정하건대 예수님은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셨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목자들이 날씨가 따뜻한 늦봄이나 여름에만 들판에서 밤을 지새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탄절에 특히 동방박사들이 많이 언급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성탄 당일이나 그 직전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헤롯이 두 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음을 고려할 때 동방박사들이 방문한 때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아마 몇 개월 후)라고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동방박사가 세 명이라는 증거도 없다. 그들이 세 개의 선물을 바쳤다고 해서 세 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능성은 있지만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복음서에 기록된 헤롯의 반응들을 고려할 때 동방박사들은 굉장히 많은 무리들(혹은 무리들을 대동한 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2. 예수님의 죽으심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짜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이것은 공관복음(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사와 요한복음의 기사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와 관련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 연도에 대한 논의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이 문제에 대하여 곧 출간될 필자의 줄져, “요한복음 해설노트”, SFC를 참고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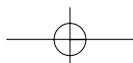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1) 문제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불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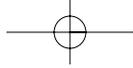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공관복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제 삼시’(오늘날의 오전 9시)라고 기록한다(막 15:25). 그러나 요 19:14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날에 대하여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목요일?]'이요 때는 제 육시' 라고 기록한다. 따라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에 심각한 연대기적인 충돌이 일어난다. 즉 공관복음은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오전 9시라고 기록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목요일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오후 3시인 것처럼 기록한다.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나는 ‘유월절의 준비일’이 언제인가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 삼시’와 ‘제 육시’의 차이에 대한 것이다.

2) 유월절의 준비일은 언제인가?

(1) 목요일? 금요일?

유월절(무교절[the Feast of Unleavened Bread]이라고도 함) 축제 기간은 아빕월(니산월) 15-21일이다(Josephus, *Antiquities* 3.10.5:249). 그리고 유월절의 준비일은 아빕월 14일이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의 준비일 날 집안에서 유교 병들을 없애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유월절 양을 잡고, 저녁에는 유월절 양으로 만찬을 벌인다. 따라서 때로는 유월절의 준비일인 14일을 유월절 축제 기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Josephus, *Antiquities* 2.15.1:317; 레 23:5; 스 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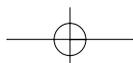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그런데 유월절은 아빕월(니산월) 15일(금요일)이므로 유월절의 준비일은 아빕월 14일(목요일)이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공관복음에 따르면 금요일이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목요일이 된다. 만일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에 대해서 공관복음의 기록과 요한복음의 기록이 다르게 된다. 즉 하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2) 제안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견해들이 제안되었다. 많은 현대 신학자들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 양을 죽이는 목요일에 일어난 것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한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유월절 양의 죽음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볼 경우에 복음서간에 연대기적인 불일치가 발생하며, 따라서 성경의 무오성이 흔들리게 된다. 어떤 신학자들은 요한이 다른 달력(아마도 에센파들이 사용한 달력)을 가지고 계산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요한이 당시의 관습에 따라 시간을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기술한 것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 역시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 우리는 이제 다음의 방법으로 성경의 기록이 서로 충돌하지 않으며 일치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한다.

(3) 기록의 일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준비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파라스큐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있다. 파라스큐에는 준비일이라는 뜻도 가지지만 ‘금요일’이라는 뜻도 가진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의 파라스큐에를 금요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특히 요 19:42에서는 파라스큐에가 확실히 금요일을 가리킨다(현대 그리스어에서도 파라스큐에는 금요일이다). 따라서 요 19:14은 ‘유월절의 금요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영어성경 NIV의 지지를 받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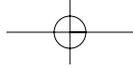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NIV는 이 구절을 의역하여 ‘유월절 주간의 준비일’ (the day of Preparation of Passover Week)이라고 번역하고, 42절을 ‘이 날은 준비일이고 다음 날은 특별한 안식일’ (it was the day of Preparation, and the next day was to be a special Sabbath)이라고 번역한다. 만일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이해한다면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신 것이 되어 공관복음의 기록과 완벽한 연대기적인 조화를 이루게 된다. 게다가 공관복음에서도 파라스큐에는 안식일 전날(금요일)을 의미한다. 즉 마 27:62에서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 날(준비일 다음 날)이 안식일임을 보여준다. 또한 막 15:42에서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는 준비일이 안식일 전날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눅 23:54에서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고 한 것을 볼 때 준비일은 필시 안식일 전날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

3) 제 육시는 언제인가?

(1) 제 삼시와 제 육시

공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공관복음이 유대의 시간 체계를 따른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유대시는 해가 뜨는 시간(대략 오전 6시)을 0시로 잡기 때문에 제 3시는 오전 9시가 된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 6시에 재판관을 받고 계신다. 제 6시는 유대시로 볼 때 낮 12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낮 12시에 재판관을 받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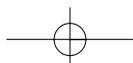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 양의 죽음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시간을 변경시켰다고 주장



한다. 즉 유대인들은 유월절 양을 유월절 전날 정오(목요일 정오)에 잡아서 저녁에 먹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일부러 시간을 바꾸어서 기술했다는 것이다(참고. 출 12:6). 그러나 이것은 복음서 상호간에 모순을 불러일으킨다. 즉 예수님이 만일 정오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이는 막 15:25에서 예수님이 새벽에 심문과 조롱을 받으신 후 제 3시(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기록과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요한복음의 시간 체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요한복음이 어떠한 시간 체계를 따르는 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요한복음의 시간은 유대시를 따르는가? 아니면 로마시를 따르는가?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시간을 상징적이라고 보거나, 요한이 시간에 대해서 일관성 없이 표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상세히 연구해 볼 때 요한복음은 분명히 시간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유대시를 따른다고 본다. 한글 개역개정판도 요 19:14의 제 6시를 난하주에서 낮 12시로 해석함으로 사실상 유대시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로마시를 따른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에 대한 모든 언급을 고려할 때 요한복음은 로마시를 따른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이에 대해서는 곧 출간될 필자의 줄저, “요한복음 해설노트”, SFC를 참고하라). 만일 공관복음이 유대시를 따른다고 보고 요한복음이 로마시를 따른다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에 있어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시간이 일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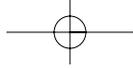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3) 복음서 기록의 조화

만일 요한복음의 시간을 로마시(로마시에 따르면, 자정이 0시이다)로 본다면 예수님이 재판받을 시간은 오전 6시이거나 오후 6시이다. 비록 제 6시를 오후 6시로 볼 수도 있겠으나 본문의 정황상 사건의 시점은 새벽이다. 요 18:27에 보면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이때가 닭이 울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판은 새벽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제 6시를 오전 6시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전 6시에 재판받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되어 공관복음의 시간 기록과 조화를 이룬다.

4) 최후의 만찬과 유월절 식사

예수님의 죽음의 날짜에 대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에 일어난 불일치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은 공관복음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월절 식사가 같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지에 대한 것이다.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인 목요일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마 26장).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마치 수요일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요 13장). 요한복음 연구사에서 이러한 불일치 역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요한복음의 ‘준비일’(파라스큐에)을 금요일로 본다면 날짜에 있어서의 불일치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즉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 모두에서 예수님은 아빔월(니산월) 14일(목요일) 저녁에 음식을 드신 것이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신 후 다음날 새벽에 잡혀 갔다. 특히 요 18:28에는 예수님이 새벽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러 끌려가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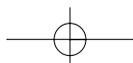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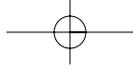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을 때,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했다는 기록이 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요한이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 식사와 다른 것이라고 말한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유월절 식사와 최후의 만찬을 다른 것이라고 볼 이유는 없다. 요 18:28의 유월절 식사는 굳이 아빔월 14일(유월절 전날)에 먹는 음식 뿐만이 아니라 유월절 기간에 먹는 모든 희생 제물을 뜻하기 때문이다(신 16:2,3; 대하 35:7-9). 결국 요한복음에 신학적인 진술이 가미된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적인 신빙성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신학적 메시지

지금까지 예수님의 탄생 연도에 대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사이의 불일치,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날짜에 대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는 헬라어 단어에 대한 이해와 고대의 시간 체계 방식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복음서들 사이의 불일치처럼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어 성경의 무오성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성경의 무오성은 언제나 사실이며, 그에 관련된 모든 논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은 온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신학적/실존적 메시지를 준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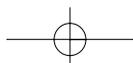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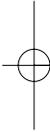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은 일찍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리고 ‘때가 차매’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 하나님의 오랜 언약의 완성자이신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 이제 인류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된다(롬 14:17).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러한 죽음의 근거에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그분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롬 5:8).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적 표현이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누렸고, 지금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 영원토록 누릴 것이다.





개혁신앙칼럼 | **황 대 우** | 진주북부교회 부목사, 부산외대 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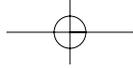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땅 밟기에 대한 개혁주의적 입장

최근 몇몇 기독교인들이 땅 밟고 기도하기의 일환으로 어떤 절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한 것과 어느 노목사가 절에서 불교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이 인터넷 동영상과 뉴스를 통해 알려지면서 한국의 불교와 기독교 사이의 외면적 평화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고 상호간의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일에 대해 보수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불교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을 사회의 공적인 사건으로 확대하고 조장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땅 밟고 기도하기가 근본적으로 미신적인 요소에서 비롯된 것이요, 신사도운동의 영향을 받은 이단적인 사상이라고 비난하면서 그것들 간의 사상적 유사성과 그 근거들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정반대의 두 평가로 인해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설왕설래한다.

땅 밟고 기도하기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평가 가운데 어떤 것이 성경적인가? 둘 다 성경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가? 땅 밟기를 학문적으로 세세하게 논하는 것이 이 짧은 글의 목적은 아니다. 다만 ‘땅 밟고 기도하기’가 성경적인지를 살펴보고 땅 밟기 기도를 가장 강력하게 변호하고 주장한 인터콥의 최바울 선교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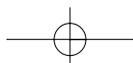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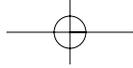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땅 밟고 기도하기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단체들로는 인터콥과 예수전도단, 그리고 신사도운동 단체로 알려져 있다. 물론 수많은 한국 교회들 역시 이러한 단체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땅 밟고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으로 알고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 언급된 단체들 가운데 특별히 백 투 예루살렘(Back to Jerusalem)을 주장하는 인터콥의 설립자 최바울(본명: 최한우) 선교사가 인터넷과 언론에 자주 보도된 것은 그가 땅 밟고 기도하기를 적극적으로 옹호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최근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그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는 선교사이면서 동시에 목사로 지칭될 것이다.

최바울 선교사의 학력에 대해서는 그가 Hacettepe 대학교에서 공부했다는 것 외에는 인터넷상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없었고 다만 그의 책 <세계영적도해>에서 다음과 같은 약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최바울 선교사는 중동아시아 선교사로 10년 사역 후 국내에서 서울대, 고려대, 아세아연합신학교 강사, 호서대, 한동대 교수를 역임하고 KUIS 대학원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여기서 “KUIS”는 “Korea University of International Studies”의 약자이며 한글로는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라는 공식명칭을 사용한다. 그는 이 학교의 총장이기도 하다.

<세계영적도해>라는 책은 2004년 12월 24일에 초판이 발행되었는데 현재 필자가 가지고 있는 책은 2010년 3월 20일에 출판된 증보 4판 2쇄본이다. 출판사는 ‘퍼내기’ 이고 총판이 ‘두란노’이다.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 순복음인천교회의 최성규 목사, 산정현교회의 송석산 목사, 한동대 부총장 김영섭 교수, 고려대의 박성근 교수의 추천사가 들어 있다.

하용조 목사는 이 책을 다음과 같이 추천한다. “최바울 선교사는 인문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학적 안목이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통찰력은 다른 어떤 서적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서 성경적이면서 사회과학적인, 그러면서도 이상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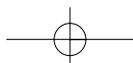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이고 실용주의적인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계문명사와 이 시대 지구적 현상, 구약의 예언서와 신약의 계시록을 관통하며 분석, 해석적이면서 예언적인 이 책을 읽어가노라면 끝을 보지 않고는 놓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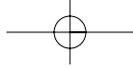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위에 소개한 그의 화려한 이력, 그리고 한국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가운데 한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유명 목사가 그의 저서에 대해 소개한 최상의 추천사만 보면 특별히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아니 그를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의심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것 같아 보일 정도다.

최바울 선교사의 책 <세계영적도해>의 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정이고 이 고민거리를 풀기 위해, 즉 사탄을 정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방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곧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인 타락한 천사, 즉 사탄 사이의 영적 전쟁에 인간이 개입되었다는 논리를 편다.

<세계영적도해>가 말하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영적 전쟁은 사탄의 바벨문명, 즉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문명을 통해 이어지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사탄의 세계경영과 도시에서 소외된 변방, 즉 영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경영의 충돌을 의미하며, 이 싸움에서 최후 승자는 결국 변방으로 도시를 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유를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가 결합함으로써 탄생하게 되는 경제적 절대 권력이 세계화라는 음모를 통해 세상을 통일하고 지배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적그리스도라는 것이며 이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싸움이 마지막 세계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다.

<세계영적도해>는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세계시장의 장악과 세계의 통일된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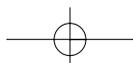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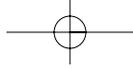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스팀화라고 본다.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WTO 즉 세계무역기구이고 미국과 G7의 세계경영 전략이라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세계경제를 장악한 통일된 세계체제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생체 바코드 666을 이마에 새기도록 하고 세계 디지털 전산 시스템으로 그들을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써 완전한 세계평화, 즉 정치사회적 평화와 더불어 완전한 평등이 실현되는 소위 세속적 유토피아를 지상에 이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세계체제가 자신의 권력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성도들을 핍박한다고 해석한다.

〈세계영적도해〉는 선교사들과 선교에 헌신한 성도와 교회들이 그 절대 평화의 유토피아적 세계체제를 붕괴시키고 인류 역사를 마감하는 주체들이라고 결론짓는다. “지구촌 변방에서 마지막 남은 바로 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이 세계 역사를 마감시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을 History makers 라고 부른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절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세계영적도해〉가 주장하는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보인다. 한 마디로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런데 하나씩 따져보면 문제가 많다. 지금부터 성경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성경해석학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여기서 모든 것을 세세히 지적할 수는 없지만 예컨대 “하나님의 사정”이라는 황당한 해석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자신이 당한 곤란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사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란 말인가? 아마도 이 책의 논리대로라면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너무 심심하신 나머지 사탄을 만들어 스스로 타락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상대로 싸움을 걸어오도록 하셨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대단한 천사를 만드시긴 했는데 이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될지는 미처 예상치 못해서 당황하셨든지 아마 둘 중 하나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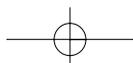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는다. “신의 조건”에 대한 최바울 선교사의 진술은 참으로 성경의 아전인수 그 자체다. “패러독스”에 대한 그의 이해와 설명 역시 교회사적 무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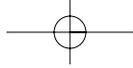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둘째, 영적 전쟁을 문명과 문화와 물질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해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물론 영적 전쟁이란 용어는 분명 성경적이고 건전한 신학 개념이다. 하지만 성경이 죄악으로 인해 문명과 과학의 발달, 그리고 물질 중심적인 세상이 반기독교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문명과 문화, 제도 자체를 거부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기를 포기해야한다고 주장하거나, 또한 이윤추구 자체를 반기독교적인 것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최바울 선교사의 주장이 성경적인 것이라고 인정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왜냐하면 조직과 제도를 하나의 권력이라고 비판하는 그가 인터콥을 조직하고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를 설립했기 때문이다. 그가 조직하고 설립한 것은 하나님의 변방적인 방법인가? 과연 그는 자신의 조직체 안에서, 그리고 그 조직체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아닌가?

영적 전쟁이란 개념은 다음과 같은 성경구절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 6:12) 이 구절에 대한 성경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많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할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점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 그런데 <세계영적도해>는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할 대상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지적하는데 그 대상이 모두 물질세계, 즉 “혈과 육”에 속한 것들이라는 점이 문제다.

셋째, 그 책이 제시하는 선교방법 역시 문제다. 영적 전쟁의 최고 무기는 선교라는 것이요, 이 선교라는 무기로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교회 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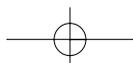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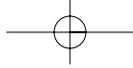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있는 모든 세상이라는 것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격언을 영적 전쟁에 적용한 듯 착각을 일으킨다. 최바울 선교사가 제시하는 사탄의 문명세계, 물질적인 도시세계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변방적 방법, 즉 선교는 확실히 “공격적”이다. 영적인 대적을 무찌르기 위해 용감히 선교의 무기를 들고 적진으로 돌진해야 하며 그 적진에서 장렬하게 전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그는 “순교”라 부른다. 아마도 그는 이것을 오늘날 영적 전쟁에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초대교회의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전도와 바울 사도의 전도 방법이 그렇게 저돌적이고 공격적인가? 과연 초대교회 신자들의 순교가 그렇게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선교의 결과였으며 그와 같은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선교 방법으로 인해 로마 제국이 멸망했는가?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방법, 즉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으로, 즉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연약하고 소극적이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등으로 부른다.

십자가는 영적 전쟁의 최후의 격전지이다. 그 영적 전쟁의 격전지에서 외적인 승리자는 마치 사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자이시다.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한없는 사랑과 철저한 희생으로 승리하셨다. 그 십자가 위에는 물과 피를 쏟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주검으로 걸려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심으로 승리하셨다. 그리고 그 승리는 십자가의 죽음 후 3일이 지나지 않아 부활로 확증되었다. 이것이 성경적인 역설, 즉 패러독스이다. 십자가는 결코 공격적이고 저돌적인 선교 방법으로 해석될 수 없다.

공격적이고 저돌적인 선교 방법은 기독교에서 찾기보다는 오히려 이슬람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그래서 최바울 선교사는 자신의 책에서 “빈 라덴과 무슬림 전사들”을 “단순 테러리스트들이 아니라 33개국 알 카에다 네트워크를 가동하면서 서구문명에 대한 이슬람 글로벌 저항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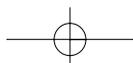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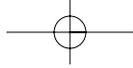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적 사명감에 충만한 고급 무슬림 전사들”로 소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그는 무슬림 전사들의 “무력투쟁 방식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언 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대적하여 싸워야 할 대상은 그 전사들이 싸우는 대상과 동일하다고 그는 말한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무기력하여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는데 비해 빈 라덴과 무슬림 전사들은 선견지명이 있어서 상대하여 싸워야할 적을 잘 파악하고 자기들 방식대로 잘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영적 싸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것이 선교라는 것이다. 한국교회에 이미 정착된 단기선교 개념은 바로 이러한 선교의 일환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기선교를 신학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재고해볼 필요는 없을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최바울 선교사는 심판의 날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오게 된다고 하면서 그 세계 역사를 마감하는 주체가 선교사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심판 날의 갑작스러운 도래, 즉 주님께서 도적같이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지구의 어느 변방이 마지막 선교지이며 마지막 선교 대상 민족인가?

또한 과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 심판 날의 도래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러한 해석은 단지 최바울 선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마치 교회의 선교 역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위대한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하지만 지금 선교에 관여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해석에 동의하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설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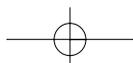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최바울 선교사는 지난 기독교 역사 100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정한 순교자가 없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 원인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선교 방법의 결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무슬림들은 저렇게 자신들의 지하드 교리에 충실하여 목숨을 바치는데 도대체 왜 기독교는 순교할 각오로 선교하지 않는냐는 논조로 도전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전쟁을 위해 모든 땅에서 우상을 몰아내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절간이든 어디든 우상이 있는 곳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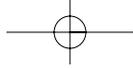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과연 성경이 말하는 선교 방법이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치는가? 순교를 각오하고 용감하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최상의 선교라고 가르치는가? 그러나 성경은 전도와 선교의 방법을 다양하게 소개한다. 또한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지도 않는다.

선교를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성경 구절은 전무하다. 오히려 때론 삼십육계를 권장하기까지 하면서 그것을 지혜라 가르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마 10:16, 23a)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교를 용감하게 하는 것도 때론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유일한 선교 방법은 아니다. 선교에는 “뱀과 같은 지혜”도 때론 필요하다.

아마도 여기에 등장하는 “뱀”이라는 단어는 최바울 선교사의 논리로는 풀기 어려운 대 과제요 골칫거리일 것이다. 그것도 영적 전쟁을 위한 선교 방법에 활용되어야 할 지혜의 본보기로 등장하니 말이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아마도 성경에 등장하는 “뱀”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적대관계에 있는 사탄을 의미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뱀”을 “지혜”의 본보기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제시하는 영적 전쟁의 대립 구도로는 풀어낼 길이 없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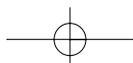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나 뱀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다니! 여차하면 줄행랑을 칠 수도 있다는 것은 최바울 선교사가 주장하는 공격적 선교 방법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그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성경은 어디에서도 공격적인 선교와 적극적인 순교를 가르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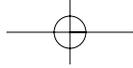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이제 최바울 선교사가 왜 땅 밟고 기도하는 것을 옹호했는지 살펴보자.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선교 방법을 동원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듯이 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권장하시는 최고의 기도 장소는 자신의 골방이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기도의 은밀성 강조하신다. 물론 공적인 기도를 골방에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적 기도는 예배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 공적 기도 역시 기도의 은밀성이라는 성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공적 기도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체하는 장소에서 하는 것이지 땅 밟고 기도하기처럼 생똥맞은 곳에 가서 그 기도예 함께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위협적이고 공격적으로 기도하는 것까지 허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봉은사에서 땅 밟고 기도하는 동영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이 성경적으로나 기독교 역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한 그의 주장은 그 자신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선교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2010년 10월 28일자 국민일보 미션라이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땅 밟기 기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이것이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고 약속하셨다. 이러한 말씀은 지금 신약 시대에는 그 땅과 그 거민들에게 영적 회복과 축복을 주리라는 뜻으로 대개 해석한다. 부동산을 넘겨받는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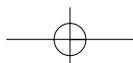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땅을 밟고 기도할 때 그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영적 전쟁의 의미이다. 영적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여 기도함으로 그 영적 세력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기도 형태는 적극적이고 전투적이며 공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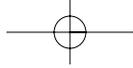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봉은사 절에서 기도하신 분들이 눈을 부라리며 싸움을 걸 듯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기도의 내용과 그 모습이 분명 다른 사람들에게겐 도전적이고 공격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와 같은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기도,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성경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상식이냐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물론 믿음이 상식을 의미하지도, 상식에 제한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비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물론 기도가 장소적으로 제한될 수는 없다. 기도는 어디에서도 가능하다. 집에서, 버스 안에서, 산에서도, 들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심지어는 절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기도의 장소에 제한이 없듯이 기도의 자세와 형태도 천편일률적으로 소리를 질러야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서 기도하느냐에 따라 기도하는 모습도 어찌면 달라야 할 것이다.

보통 소리를 내어서 하는 자신만의 골방 기도를 시내 한복판에서도 그대로 할 수는 없다. 아니 매우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마치 수영복 차림으로 거니는 일이 해변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겠지만 그곳이 평상시 다니는 거리와 시내 한복판이라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과 같다. 교회 안에서 하는 합심 기도의 내용을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방법을 지혜롭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는가!

땅 밟고 기도하기와 같은 형태의 기도 모습은 선교단체들을 통해 대학생들과 청년들 사이에 이미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종류의 기도는 기도의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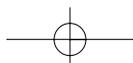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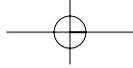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접성과 현장성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수많은 한국 교회에 쉽게 침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대형교회들은 대부분 이런 땅 밟기 기도와 같은 기도를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실천해 오고 있다. 수많은 목사님들도 사실상 그런 종류의 기도에 익숙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자신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다양한 형태로 적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도특공대”와 같은 특별한 기도팀의 조직이다.

교회를 위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권장할 일이다. 그리고 함께 모여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하지만 기도특공대와 같은 조직은 그 용어에서부터 이미 그것의 공격적 성격을 감지할 수 있다. 도대체 어떤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런 조직을 만드는가? 그냥 기도는 좋은 것이니까 많이 하고 집중적으로 하자는 논리인지, 아니면 집요하게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게 되는 것이 기도의 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일천 번째 등이 교회에 무분별하게 도입된 결과인지 참으로 알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정복하신 방법이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이었듯이 로마 제국에서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 역시 로마 제국을 바로 그 기독교 사랑으로 정복했다. 최바울 선교사도 자신의 책에서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핍박 가운데 목숨 걸고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 십자가를 지고 정도(定道)를 걸었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歷史)를 반전시키고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탄핵하기 위해 그들의 땅에 찾아가서 그 땅을 밟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과연 그가 말하는 십자가를 지고 정도를 걷는 행위인지 묻고 싶다.

로마 제국을 정복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기 위해 순교했을 뿐이다.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어야 한다고 외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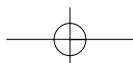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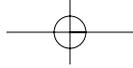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보란 듯이 기도한 다음 잡혀 죽은 것이 아니다. 적진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 장렬하게 순교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로마의 박해 시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어떤 사람들보다 바보 같을 정도로 순진하고 순종적인 사람들이었다. 바로 그 순진함과 순종이 기독교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로마 제국을 기독교 제국이 되게 한 원동력이다.

이런 점에서 성경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최바울 선교사의 공격적 선교 방법은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실 교회사에서 이와 같은 공격적 선교 방법은 중세 초에 영토 확장이라는 명분과 더불어 사용되었으며 중세 중반에 일어난 십자군 원정이라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십자군 원정은 사실상 기독교적인 선교 방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슬람식 선교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슬람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방법은 무력이다. 물론 그들도 싸우지 않고 항복하는 자들에게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다.

이런 이슬람식의 공격적이고도 무력적인 선교 방법은 종교개혁 이후 종교전쟁으로, 다시 식민지 정복 전쟁을 통해 교회사에 재등장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식민지 정책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선교는 그 시작의 역사를 아마도 19세기 정도로 잡아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적극적이다 못해 공격적이고 전투적으로 선교해야 한다면, 성경이 그것을 가르친다면 우리는 종교전쟁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종교전쟁을 불사하는 전도와 선교의 근거를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을 단순히 전도와 선교 영역에만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선교 영역에서의 영적 싸움을 마치 영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타종교와 불신자들과의 기싸움 정도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런 잘못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영적 영토가 확장된다는 비성경적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를 3차원적 공간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는 영적 영토로 상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영적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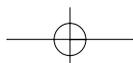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쟁이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영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싸움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장소는 자기 자신이다. 자신의 육체의 소욕과 더불어 싸워야 한다. 이러한 개인의 내적 전쟁은 살아 숨 쉬는 한 지속될 것이다. 영적 전쟁은 자신과의 싸움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이 세상의 불의와 악들, 그리고 그것들을 양산하는 모든 악한 영적 세력들과 더불어 싸워야 한다. 이런 싸움은 단순히 개인의 영적 문제로 끝나지 않고 온 교인들이 힘을 모아 함께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 연합전쟁이다.

이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해야 한다.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도 깨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영적 전쟁은 상대가 누구이든 구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이 타종교인과 불신자들과의 싸움은 분명 아니다. 그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일 뿐이다. 우리에게 타 종교인들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사는 마을에서 쫓아낼 권리는 없다.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의무와 책임은 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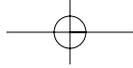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건강, 의료, 재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 1:31)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세상은 죽음도 노화도 질병도 없는 세상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첫 사람에게 당신의 명령을 주시면서 순종하지 않을 때 죽게 될 것에 대해 처음 말씀하셨다(창 2:17). 그 사람이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자연은 그를 거스르며(창 3:18), 그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고(창 3:19), 생명나무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었다(창 3:24). 예수께서는 치유를 행하시면서 죄사함을 언급하시어 죄와 질병이 연관이 있는 것을 시사하셨다(막 2:3-12). 지금 세상에 질병과 장애와 노화와 죽음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원래의 모습을 상실하고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하여 원래 세상에서의 조화와 건강으로부터 떨어진 현재의 세상을 원래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질병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 관심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 이스라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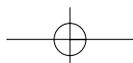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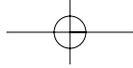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도록 실패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던 선지자들의 비전에, 그리고 인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 속에 잘 나타나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든 질병을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멀리 해주시겠다고 하셨다(신 7:15). 또한 당신의 백성들이 지킬 법에도 그들의 보건과 관련된 규례들을 주셨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당시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건을 위한 규례들이 나오는데, 이들을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식품위생법, 모자보건법, 전염병예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에게 섭취가 금지되었던 부정한 동물들은 주변 부족들의 부정한 제의 행태와 연관이 있거나 당시에 경험적으로 알려진 질병과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산 후 산모의 격리는 산모와 영아 사망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과 관념을 반영한 보호조치의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문둥병이라고 기록된 나균감염 혹은 진균감염 등의 전염성 피부질환은 천막 공동체의 공중보건을 위해 격리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였으리라 생각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패역하였을 때, 언약의 말씀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과 함께 질병이 닥칠 것을 경고하였었고(신 28:59-61), 실제로 그들은 그 경고대로 끊이지 않는 질병을 목도해야 했다(렘 6:7). 그 암울한 시기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바라보던 선지자들은 마침내 치유가 신속히 임하고(사 58:8) 건강이 회복될 것임을(말 4:2) 내다보며, 여호와와의 종이 우리의 질병을 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될 것을 예언했다(사 53:4,5).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을 때 이 예언들은 현실이 되었다. 예수께서는 사역 초기에 갈릴리 회당에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뿐 아니라 육체적 문제를 가진 이에게 회복을 전파하러 오셨음을 선언하셨고(눅 4:18,19), 세례요한이 그 제자들을 보내어 문의하였을 때도 질병을 가진 자가 치유함을 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역의 표적으로 제시하셨다(눅 7:18-23, 마 11:2-6).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





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환자들과 장애인들을 다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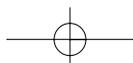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주님은 짧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하시던 일들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요 14:12)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요 20:21). 그 이후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사역이 계속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행 5: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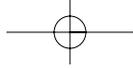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성경적 관점에서 건강을 타락 이전의 상태, 즉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의도하셨던 바대로의 상태로 이해하고, 타락한 인간을 위해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의 사역의 핵심인 죄사함은 질병 치유와 동시에 나타났던 의미를 이해한다면, 건강을 말할 때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보는 이분법은 정당성을 잃는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은 존재로서, 죄와 타락, 구원과 회복은 전인에 미치는 것이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안녕과 화평과 완전함과 건강을 포괄하는 의미로서의 살롬이다.

의료: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 15:26)

사람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 치료자이심을 선언하셨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제사장의 업무 중 하나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진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었다(레 13). 질병의 진단과 치료의 과정에 제사장들을 통합함으로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했다. 제사장의 그러한 권위는 예수님도 인정하셨다(눅 5:14). 또한 예수님 자신도 참 대제사장이므로써 치유를 행하셨고, 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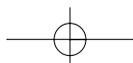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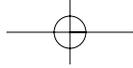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들에게 치유 사역을 위임하셨으며, 교회도 그 직무를 이어받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마 28:18)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셔서 제자들이 명하면 병이 떠날 수밖에 없는 권위를 부여하셨다(눅 9:1). 교회의 장로들이 환자를 방문하고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약 5:14).

교회는 항상 환자들과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해왔다. 치료 행위가 교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다. 근대 과학의 발흥과 더불어 의학도 자연스럽게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었는데, 환자 치료를 위한 의학적 지식이 과학화, 전문화 되어가면서 치료는 성직자보다 전문가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이후에 의학과 병원의 발전을 주도한 것은 기독교 사회였고, 지난 두 세기 동안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에는 거의 항상 의료 사역이 동반되었고 병원이 생겨났다. 이는 의료 행위의 동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공효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까닭이기도 하고, 예수께서 행하셨던 대로 말씀을 전파하면서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역의 모델을 당연히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의 발전된 의학 수준은 1세기 전 척박한 조선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찾아왔던 의료선교사들에게 많은 빛을 지고 있는 셈이다. 어떤 면에서 병원은 기독교 문화의 산물이라고 해도 그리 근거 없는 말은 아닐 터이다.

병원 사역은 그 본질이 하나님 나라의 실천과 무관하지 않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의료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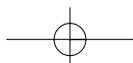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인간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이해할 수는 없는 통합적인 존재인 것처럼, 치료의 방법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며 성경적이지도 않다. 예수께서도 말씀을 통하여 병을 고치기도 하셨지만 안수하거나(눅 1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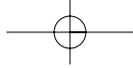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흙을 바르는 등의(요 9:6) 치료적 행위를 하기도 하였고, 신약의 교회에서도 치료적 행위는 당연시 되었다(딤후 5:23, 약 5:14). 사람을 치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자연치유나 의술을 통한 치료 모두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자연을 지으신 분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사실 사람은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타락하여 어두워진 이성을 가진 사람은 자연적인 현상에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초자연적인 현상만 하나님의 역사로 인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한다. 자연과 초자연의 구분은 사람이 그 메카니즘을 이해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다.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는 자연적인 치료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같은 맥락에서 의학의 발달은 하나님의 공휼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다. 의학은 하나님의 공휼에 힘입어 발전되어 온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만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교만해졌고, 교회와 분리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물질주의적, 생의학적 모델을 이상으로 삼았다. 데카르트의 이원론과 뉴우튼의 기계론에 기반을 둔 생의학적 모델은 인체를 각 부분으로 분해될 수 있는 기계로 이해하며, 질병은 세포 및 분자생물학적 관점에서 연구될 수 있는 생물학적 매카니즘의 기능 장애이고 의사의 역할은 이 특수 매카니즘의 기능 장애를 교정하기 위하여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본다. 의학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계관은 인간을 자연과 조화하기 보다는 대립하는 존재로 보는 왜곡된 이해를 초래했고 의학은 인간 중심적이기 보다는 질병 중심으로 되었다. 그 결과 현대의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롬을 전하기보다는 질병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을 야기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멀어질 때 의료의 본질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 법이다. 현대의학은 성경으로부터 인간관을 배워 패러다임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의학을 참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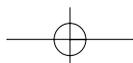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재활: 약한 자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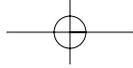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후 12:9)

의학의 발전을 인하여 과거에는 사망에 이르렀을 질병이나 사고 이후에도 생존하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20세기의 두 번의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부상자들이 장애를 가진 채 생존하게 되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현대의학은 생명을 유지하는 의학에서 더 나아가 건강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의학에 이르렀는데, 재활의학은 건강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비교적 새롭게 나타난 의학의 분야이다. 재활의학은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의 존중과 관심을 환기하는데 이바지해왔고 21세기의 고령사회에서는 더욱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 역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재활의료는 장애인과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살롬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살롬이다. 살롬은 건강하고 평화로운 상태다. 장애인은 결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대로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살롬이 임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 그 해답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이중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다. 하나님 나라 성취의 이중성, 즉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는 살롬의 성취도 제한적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건강을 주시지만 질병과 장애와 노화와 죽음이 없는 완전한 건강은 아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건강은 '질병 속의 건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질병이라는 것 자체는 실재론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기보다는 의학적으로 정의된 존재(entity)라는데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의학적 개념의 변화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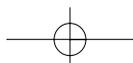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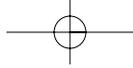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라 각 질병의 정의도 변화하며 새롭게 생기는 질병이 있는가하면 사라지는 질병도 있다. 이 세상에서의 질병과 건강은 연장선상에 있는 상대적인 차이일 뿐이다. 질병이 없는 사람도 완전한 건강을 소유했다고 할 수 없으며 질병이 있다고 진단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의학적 정의에 의해서만 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이중성 사이에 있는 이 세상에서의 건강이란 '신체적 상태'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삶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아무런 질병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장애가 있으면서도 건강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로, 전신화상을 입고도 자신을 사랑하는 행복을 누리는 이지선씨와 사지가 없는 선천성 기형을 안고 태어나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고 다니는 닉 부이치치를 들 수 있다. 예수님도 신체적으로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시각기능이 정상이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낫다고 하셨다(요 9:41).

건강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견지하지 않으면 치유에 대한 오해를 가지기 쉽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선언대로(사 53:5)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신다. 그러나 그 치유가 반드시 의학적 기준에 따른 질병의 소실일 이유는 없다. 이 점을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건강과 치유를 주지 않으시는 것으로 불신하며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시험에 빠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질병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질병이 다 낫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신다. 지금 현재의 몸은 부활의 몸이 아니며, 유치가 빠지고 나면 영구치가 돌아나듯이 지금의 불완전한 몸은 장차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파하며 이적을 행했던 초대교회의 일군들도 질병을 겪었다. 에바브로디도는 질병으로 거의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공훈으로 회복되었고(빌 2:27), 바울 역시 그를 괴롭히는 장애로부터 결국 벗어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약함 가운데서 그를 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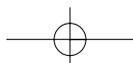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전하게 하시었다(고후 12:9). 재활의료는 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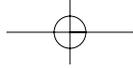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새 하늘과 새 땅: 이사야 65장 17-20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 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 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이리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치료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다. 그 제자들도 치유 사역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계승하는 병원은 하나님 나라의 살롬을 선포하는 병원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사야 65장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에는 건강과 관련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곧 영아 사망이 사라질 것과 수명이 최소 100세까지는 연장될 것이라는 비전이다(사 65:20). 이 비전은 분명 부활의 세계에 관한 언급은 아닌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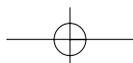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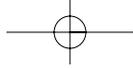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으로 보인다. 이 세상의 삶에서 건강한 상태로 천수를 누리는 것은 이사야 시대의 유다 사람들도 바라는 바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사야에게 비전으로 보여 주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까닭일 터이다.

건강의 문제에 관한 한 이사야 65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의 성취는 역사상 과거 어느 때보다 한층 가까워졌다. 현대의 선진국 사회의 건강지표는 놀랍게 개선되었다. 산모와 영유아 사망률은 현저하게 낮아졌고 평균수명도 크게 늘어났다. 우리나라만 해도 영아 사망률은 1970년 1,000명당 45명에서 2006년 1,000명당 4.1명으로 크게 호전되었고, 평균 수명은 1960년 52.4세에서 2007년 79.4세로 괄목할만한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단지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건강한 상태로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롬을 전하는 도구로서의 의학은 건강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는데 관심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 병원의 사명은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장애인, 노인, 만성병자, 난치병자들에게, 비록 그들이 가진 질병과 장애와 노화의 문제를 없앨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살롬을 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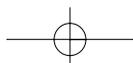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의료라는 도구로 환자들을 돕는 것을 기뻐하신다. 불완전하나마 이 세상에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돕는 재활의료 역시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가 된다. 병원이 하나님 나라의 실천으로서의 의료를 행하려면 교회와 연합하여 사역해야 한다. 원래 의료 사역은 그 본질상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이제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도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교회에서의 치유사역이 현대의료와 분리되어 시행될 때 많은 부작용이 있다. 치유를 갈망하는 환자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현재에까지 알려진 최선의 치료를 놓칠 우려가 있다. 의학은 불완전하나마 지금까지 밝혀진 최선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 마찬가지로 병원에서는 질병





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도모할 기회가 없다. 현재 병원과 교회는 최소한의 공조만을 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교회는 병원의 전문성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지만 웬지 병원의 치료 과정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병원은 치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현대의학의 생의학적 모델에 의존하면서 교회가 환자들에게 주는 도움은 심리적인 측면 정도에 국한되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역사는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다고 믿는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한 개인이 신체적인 건강을 회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샬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환자와 장애인들을 대하여 전인 치유를 행하신 주님의 사역을 본받기 위해서는 교회와 의료 사이에 많은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며 병원과 치유사역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의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샬롬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천이다. 샬롬의 선포는 지금도 의료와 건강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절실하다. 개발도상국에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는 의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며 선교의 수단이 아니라 선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의료는 과거보다 많이 향상되었으나 특히 부족한 부분은 재활의료의 영역이다.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여러 이웃나라들로부터 의료 지원이 있지만, 그 이후에 생겨난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의료의 지원에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세상에서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회복이 아직 불가능한 장애라 하더라도 재활医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회복을 전할 수 있다. 재활의학이 추구하는 삶의 질 회복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미암지 않으면 성취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의료 사역은 복음의 진보와 함께 계속되어야 할 일이다. 그런 사역들이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 선행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지구촌 공동체는 비로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다.



서 평 Book Review

주강식 | 조엘 비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칼빈주의』

이운연 | 존 맥아더, 『값비싼 기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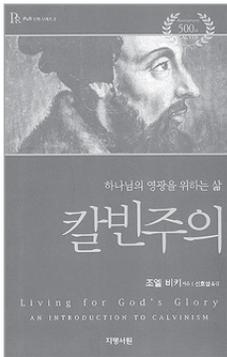
서평 | 주강식 | 양산남부교회 담임목사



Book Review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칼빈주의』

조엘 비키 / 지평서원조엘 비키 저/ 신호섭 역 / 지평서원, 637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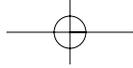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이 책을 93년만의 추위라는 엄동설한에 잠자리에 들기 전 매일 한 장 내지는 몇 장을 읽었다. 그러나 책의 분량면에서 630여 페이지에 달하여 단번에 읽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칼빈주의¹⁾의 진수와 역사의 구수한 향기를 맡을 수 있어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오늘날 칼빈주의가 퇴색되어가고 신앙의 신사조에 요동치고 있는 때에 개혁자들의 열정과 신앙의 정통성을 잇게 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는다. 또한 이 시대에 칼빈

주의의 부흥을 기대한다.

이 책의 역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칼빈주의』라고 번역했지만 원제는 *Living for God's Glory: An Introduction to Calvinism* 라고 되어 있다. 원래 목적은 칼빈주의의 대가인 조엘 비키(Joel R. Beeke)가 칼빈주의를 현대

1) 필자는 개혁주의와 칼빈주의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혼용하여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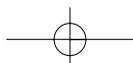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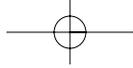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에 조금 더 소개하려는 의도에서 책을 편집했고, 그 외에도 칼빈주의에 정통한 8명의 기고자가 있다. 조엘 비키는 영국 세일스버리의 ‘말콤 왓츠 컨퍼런스 (Malcolm Watt's Conference)’와 브라질의 ‘청교도 프로젝트(the Puritan Project)’, 그리고 호주 ‘아들레이드 컨퍼런스(Adelaide Conference)’에서의 칼빈주의 강연을 통하여 이 내용이 책으로 집필될 필요성을 느꼈고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책으로 출판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해인 2009년에 맞추어서 레포메이션 트러스트(Reformation Trust) 출판사를 통해 출간되었다.

그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 있다.

- 1부 칼빈주의 역사
- 2부 칼빈주의 지성
- 3부 칼빈주의 심장
- 4부 칼빈주의의 교회
- 5부 칼빈주의의 실천
- 6부 칼빈주의의 목적

1부 칼빈주의 역사에서는 칼빈주의가 태동할 수 밖에 없었던 정치, 문화, 종교적 배경과 신앙고백서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칼빈주의의 신앙이 녹아 있는 것이 신앙고백서들이다. 교회의 역사는 신앙고백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개혁주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신앙고백서는 『제1,2스위스 신앙고백』(1536, 1566), 『스위스 일치신조』(1675),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1560), 『39개 신앙조항』(156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 『소요리문답』(1648), 『대요리문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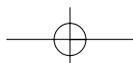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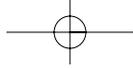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1648), 『벨직 신앙고백서』(1561),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1563), 『도르트 신조』(1618-1619)이다. 이것들은 ‘살아 있는’ 교리적 표준이다. 그것은 21세기의 수많은 개혁신의 교회들이 공식적인 문서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신의나 장로교가 아닌 칼빈주의 침례교에서 발행된 신앙고백서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소개하고 있다.

2부 칼빈주의의 지성에서는 칼빈주의의 정수요 가장 핵심교리인 하나님 중심주의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5대교리를 다루고 있다(3-9장). TULIP의 두문자어로 약칭되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칼빈주의의 중요한 교리이지만 전부가 아니다. 이것은 단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항의에 대한 칼빈주의의 답변의 결과물이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하나하나가 톱니의 바퀴처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성도의 견인과 보증을 다루는 장에서 저자는 오늘날 부흥을 열망한 나머지 은사주의로 흐르는 신앙노선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은사주의는 칼빈주의가 내세우는 지성보다는 감성에 더 호소 한다. 신앙을 개인의 체험위주로 나아갈 때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또한 견인과 보증을 잘못 이해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개념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믿음과 거룩 등과 같이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을 제외한 채 죄인의 칭의가 하나님의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불완전한 개념”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10장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었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뜻과 내포된 의미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칼빈주의를 다루면서 루터의 믿음사상으로 논증하려고 했던 것은 조엘 비키의 허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루터는 개혁자이면서도 칼빈주의와는 성찬론이나 국가론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11장에서 제임스 그리어(James Grier)는 칼빈에게 있어서 이색적 측면인 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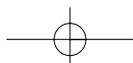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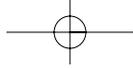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적 신학자라는 이미지를 주장한다. “칼빈은 자신의 신학적 요점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철학적 수단과 논증을 사용하되 철학을 신학의 하인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한다.

3부 칼빈주의 심장에서 칼빈을 냉소적인 신학자나 5대 교리의 신학자, 예정론의 대변자로 이해하는 사상을 12장에서는 여지없이 날려버린다. 그는 미국 장로교 신학자 워필드의 지적과 같이 ‘탁월한 성령의 신학자’로 불리기에 전혀 손색이 없다. 그의 시편주석에는 성령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언급이 넘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 우리가 칼빈주의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칼빈의 사상을 이어받은 청교도들 중 존 프레스턴(John Preston)은 “영적인 용기와 담대함을 얻기 위한 방법은 성령의 사역에서부터 오며 그 다양한 방법은 말씀을 들음, 성례참여, 기도, 묵상, 대담, 성도의 교통, 선을 행하려는 특별한 결심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칼빈주의의 심장 가운데 경건을 주제로 하여 “참된 경건 없이는 참된 지식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경건에 관한 참된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칼빈은 경건을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태도와 그분을 향한 순종”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라서 경건의 국면을 신비적 연합, 성령과 믿음의 관계, 칭의와 성화 속에서 찾았다. 칼빈의 경건은 교회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시편 찬미는 “경건의 정경적 교과서”로 간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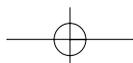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칼빈주의는 삶의 모든 국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담아내는 것이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성화이다(14장). 칼빈주의는 고상한 지식과 이론만을 제공하는 교리가 아니다. 이러한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35문에 잘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성화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적으로 새롭게 되며,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는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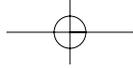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라고 대답한다. 청교도들은 칼빈주의를 실천적인 면에서 아주 잘 적용하고 있다. 이것이 성화로 나타난다. 청교도 존 오웬(John Owen)은 그러한 칼빈의 사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칼빈의 신학이 사변적이며 이론에 그치지 않고 목회적이며 실천적임을 청교도들이 신학의 틀을 세워 삶에 잘 적용했다. 은혜의 방편으로 성경읽기, 묵상, 기도, 일기쓰기 등을 소개한다. 그러나 토마스 왓슨은 “모든 말씀을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라”고 조언하고 있다. 말씀의 적용에 대한 이 말을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6하(WH) 원칙과 더불어 누구에게(to whom)를 포함한다면 무리한 적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청교도들의 매일 사용하는 성화 방법에 대하여 자아 의존을 배제한 열심 있는 기도와 격렬한 노동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방법은 중세 수도사들의 ‘기도하라. 일하라’는 모토에서 온 듯하다. 성화의 방법론에서 격렬한 노동을 현재의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4부 칼빈주의의 교회에서 교회 개혁을 다루는 장(16장)에서 칼빈의 교회론은 루터교회와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여 개혁파와 장로교파를 형성하게 했다. 이것은 개혁주의 교회 정치의 본질이며 정수이다. 개혁주의 예배의 토대(17장)에 대하여는 레이 래닝(Lay Lanning)이 주제를 맡아 다루고 있다. 루터파 교회와 성공회 교회에서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관례들을 재도입하여 “‘로마교회가 하는 것처럼 하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가톨릭주의와 개신교회의 신학적 차이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에 절대적으로 동감한다. 칼빈은 루터보다 개혁을 조금 더 완전하게 한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장로교의 설교에 있어서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예배의 다른 부분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 지적은 『예배모범』의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본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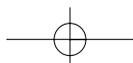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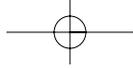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개혁주의 전통에서 시편찬송을 많이 계승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에서 12곡이 전수되었으나 이것마저 부를 수 있는 성도가 없었다. 이것으로 개혁주의는 예전에 대한 무관심이 정통으로 격찬될 여지를 남겼다. 예배형태의 흐름을 종교개혁기부터 근대까지 아주 잘 꿰뚫었다고 본다. 예전학에 대하여 개혁주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레이래닝은 장로교가 예배에 있어서 종교개혁의 유산을 벗어났다고 진단한다. 칼빈에 대하여 명석한 신학자들이 있지만 바르트주의자인 존 맥닐을 자주 거론하는 것은 칼빈주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정통주의를 칼빈주의로 호도할 수 있으므로 주의깊은 사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혁주의 설교의 뿌리(18장)는 로버트 올리버(Robert Oliver)가 담당을 하였다. 칼빈은 매일 설교를 했으며, 영국은 엘리자베스 통치시대의 중반과 1640년대 사이에 ‘영국은 책의 나라와 백성이 되었는데, 그 책이 바로 성경이었다’ 고 했다. 설교는 사람과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 칼빈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경 기자의 마음을 펼쳐보이는 것을 그의 유일한 사명”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는 설교를 단순, 명료하게 하려고 했다고 고백한다. 이러한 사상은 성경 우선주의에서 나온 것이며 ‘오직 성경’에서 나온 것이다. 특이한 점은 칼빈이 회중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메모없이 설교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원고에 집착하지 않고 철저한 준비를 했음을 잘 나타내 준다.

말씀과 적용(19장)에 있어서 칼빈과 칼빈주의자들은 ‘실험적’ 또는 ‘경험적’ 설교자라고 불렸다. 이러한 설교에 대한 언급은 칼빈주의의 핵심이었다. 경험적 설교는 “칼빈주의적 진리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며, 그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 목적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성경적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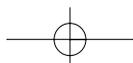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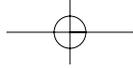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적용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많은 설교를 듣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경험적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이 설교는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경험적이라고 하여 개인의 주관주의적 체험에 기초하지 않는다. “적용이 빠진 설교는 좋은 가르침이 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설교는 될 수 없다.” 설교자는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서야하므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서 안 된다. 백스터가 지적한 것처럼 청교도들은 “회중을 웃게 만들고 경박하게 하는 설교를 혐오하고 진지한 설교를 해야 한다.” 이러한 견해는 현대 설교에서 강조되고 실행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칼빈의 복음 전도(20장)에서 칼빈에게 선교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양분된 대답이 있었다. 그러나 조엘 비키는 칼빈에게 전도와 지상 대명령에 대한 사고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칼빈 주석 인용에 대하여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다. 칼빈이 자신의 교회, 제네바, 유럽(프랑스), 해외(브라질)에서 복음 전도를 실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이 적극적인 선교적 마인드를 가졌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칼빈이 모든 분야에 대해 좋은 가르침을 주었다면 좋겠으나 그도 시대의 아들임을 기억해야 하고 칼빈이 제시하지 못한 것은 각 신학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연구해야 할 부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웨스턴 신학교 존 헤셀링크(John Hesselink) 박사는 “칼빈에게 현대적 개념의 선교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의 선교사상, 즉 선교에 대한 개념은 확고하다”²⁾ 언급하였다.

2) 최정만, 『칼빈의 선교사상』(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161.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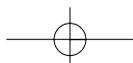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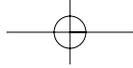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청교도의 복음전도(21장)에서 조엘 비키는 칼빈과 마찬가지로 그의 정신을 계승한 청교도들에게 복음전도가 열정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청교도와 현대 복음전도(설교)의 문제점을 잘 부각시켰으며 매우 통찰력 있게 제시한다. 청교도들이 평이한 설교 형식을 사용한 것은 그 중심에 전도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교도들의 복음전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청교도 선교사였던 존 엘리엇(John Eliot)이전까지는 설교에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5부에서 칼빈의 실천을 다루며 전인적인 삶을 위한 신학(22장)으로 레이 페닝스(Ray Pennings)가 취급한다. 고린도전서 10:31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가 바로 이 신학에 대입된 말씀이다. 중세의 이원론적 견해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두 왕국의 개념으로 발전하며 칼빈은 루터의 견해도, 재세레파의 견해도, 로마 가톨릭의 견해도 수용하지 않는다. 그는 정부 관리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고 신적 권위를 힘입으며, 실상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했다. 모든 신자의 만인제사장설을 주장하므로 칼빈주의는 문화, 예술, 교육, 학문, 정치, 경제, 과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청교도들은 칼빈주의의 실천을 가정에서 청교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23-24장). 성경을 통해 개혁해야할 가장 중요한 대상이 가정이었던 것이다. 청교도들이 부부간의 애정, 즉 성(性)을 장려한 것은 타당하지만 남편이 아내와 오랫동안 동침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출교를 했다는 것은 교회가 지나치게 성도의 사생활에 간섭했다고 사려된다. 또한 청교도는 그리스도인과 가족과의 관계가 개인적인 성화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청교도 가정의 아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부부는 동등하지만 그 역할에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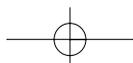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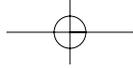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서 차별이 있다. 가정예배는 자녀 양육의 가장 강력한 방편이 되었다. 청교도들은 가족을 예배하게 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결국 아버지가 되는 일에 실패하는 것과도 같다고 여겼다.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노동(25장)에 대하여도 저주가 아닌 “개인의 선택 또는 영원한 구원의 표지”로 간주되었다. 칼빈은 “아무리 천하고 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찬란하고도 고귀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에서 노동은 소명과 연관지어 생각한다. 또한 이것은 선택과 성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막스 웨버가 이해한 것과는 반대로 청교도들은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했으므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만든다. 네덜란드와 스코틀랜드의 검약의 태도가 청교도에 의해 미국에 들어왔으나 이러한 유산의 상당 부분은 오늘날 북미의 물질주의로 인해 어두워졌다.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칼빈주의의 관점은 분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노동도 우리의 예배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칼빈주의는 오늘날의 물질주의 시대에 매우 필요한 것이다.

정부와 교회의 관계(26장)에서는 “서로 다른 책임들, 견제와 균형, 그리고 한 조직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피하려는 것이 교회 정치뿐만 아니라 민간 정부에 대한 칼빈사상의 특징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루터교, 성공회와는 다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자들이 그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에서만 살아간다면 그들은 개혁주의와 풍성한 청교도 유산의 위대한 부분을 놓치게 될 것이다. 공공의 선과 유익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노력해야 하는 칼빈주의의 지향점을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칼빈주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집에 있지만 결코 그곳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는 순례자로 살아갈 것을 상기시킨다. 칼빈주의 윤리(27장)는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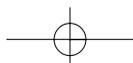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서 시작되는 하나님 말씀의 윤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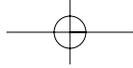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칼빈주의를 정리하면서 싱클레어 퍼거슨(Sinclair Ferguson)의 글로 칼빈주의 목적을 배열하고 있다. 칼빈주의와 전혀 부조화를 나타낼 송영(28장)을 칼빈주의와 결부시켜 정리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구도를 로마서 11:36에서 찾는다. 조금 더 언급하면 로마서 9-11장에 걸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택, 은혜를 구별하는 것(9장), 복음의 선포(10장),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11장)로 배열하면서 11장 마지막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롬 11:36)로 마무리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후에 하반절에서 종교개혁의 교훈을 요약해 주는 유명한 라틴어인 ‘*solī Deo gloria*’, 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저자는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이 송영을 불러일으키는 ‘성경적 가르침’이다”라고 주장한다. 조엘 비키는 637페이지에 걸쳐서 칼빈주의를 소개하면서 결론을 종교개혁의 총합적 슬로건으로 마무리한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정리를 하고자 한다.

먼저 이 책은 칼빈주의의 편협성을 단 번에 날리는 작품이었다. 칼빈주의를 언급하면 ‘도덕적 율법주의’를 연상케 된다. 그러나 결코 칼빈주의는 편협하지 않고 광범위하며 화합과 조화, 그리고 포용력이 있다.

두 번째, 개혁주의는 이론에 머물지 않고 삶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학문이라는 점이다. 신학을 위한 신학이 아니라 경건에 뿌리를 둔 실천적 학문이다. 칼빈주의는 딱딱한 교리나 이론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삶의 실천적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자들이 청교도들이다. 칼빈주의를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에 뿌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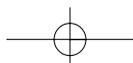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내리게한 이들이다.

세 번째, 칼빈주의의 결론을 송영과 맺는 놀라운 결론을 내린다. 그 가르침 안에는 은혜의 대하(大河)가 흐르고 있다. 장엄한 오케스트라가 있고 하나님의 위엄이 따뜻한 햇살처럼 비취진다. 그러므로 송영은 개혁주의의 필연이다.

네 번째, 칼빈주의는 한 권의 책으로 역사와 사상과 실천과 결론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책이다. 칼빈주의를 소개하는 것으로 언급하지만 각 주제마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 정수를 제대로 짚어가며 소개하는 아주 좋은 책이요 안내자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주의를 소개하면서 바르트주의자들의 글을 인용하여 논증하려는 점, 루터의 주장을 개혁주의로 논증하려는 점, 청교도들의 열정이 지나쳐서 사생활까지 간섭하는 점, 성경을 읽는 태도에서 주의점, 청교도들의 성화방법론에서 격렬한 노동을 들고 있는 점, 칼빈에게 선교사상이 있었다는 점 등 다소 무리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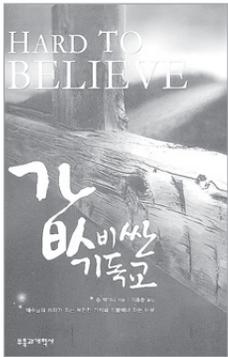
서평 | 이운연 | 여수 총일교회 담임목사



Book Review

『값 비싼 기독교』

존 맥아더 지음 이용중 옮김 / 부흥과 개혁사, 2009년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까? 이런 저런 통계들이 있지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분명 기독교인의 수는 엄청나다. 그런데 그 많은 기독교인 중에 진정한 기독교인은 얼마나 될까?

이런 질문을 두고 과격하다느니, 교만하다느니 말들을 한다. 『값비싼 기독교』의 저자 존 맥아더 박사는 뭐라 말할까? 저자는 서문에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한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되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한없는 기쁨 가운데 기적과 놀라운 경험을 맛보며 영원히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살고 싶은가? ... ‘예’ 라고 대답했다면 분명히 알아 두기 바란다. 이 질문에 재빨리 ‘예’ 라고 대답하는 많은 사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결코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Hard to Belie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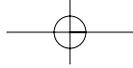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이 책의 원제목은 『Hard to Believe』이다. 기독교가 결코 쉽게 믿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님을 강조한다. 기독교 신앙을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천박한 사고를 저자는 통렬히 비판한다.

저자는 미국 매스터 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The Master's College & The Master's Seminary)이며 그레이스 커뮤니티(침례교회)의 목사이다. 방송 설교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다작(多作)으로도 명성이 있다. 국내에도 그의 책이 50여권이나 나와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른바 소비자 중심의 교회를 비판한다. 소비자가 원하면 햄버거의 크기와 맛을 바꿀 수 있듯이 오늘날 교회가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바꾸는 행태를 비판한다(1장). 예배가 길면 줄이고 사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설교도 뜬어 고친다. 교회 밴드의 음악으로 사람을 즐겁게 한다. 소비자 친화적인 교회(User-friendly Church),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해지는 교회가 되어 간다. 이를 저자는 Seeker-sensitive church라고 부른다. 이를 구도자 중심적인 교회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좀 거슬린다. ‘구도자’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사람의 요구에 맞추려고 복음을 뜬어 고치기 시작할 때, 복음은 이미 복음이 아니다(167쪽). 바울은 이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다가 인간 쓰레기로 취급받는다(3장). 예수님 역시 타협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으셨다(4장).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가볍게 전도해서 쉽게 구원에 이르게 하려 든다. 어렵도 없는 일일뿐더러,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따르지 않는 별종의 기독교가 되었다

복음을 왜곡시키고 희석시켜서 전해도 어차피 사람들은 용인하지 않는다. 복음의 가시를 제거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메시지를 계발해도(38쪽)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가 된 사람들은 어차피 만족하지 못한다. 금욕주의적이었던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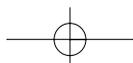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레 요한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서는 잘 먹는다고 시비를 걸었다. 진리를 듣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변명거리 밖에 보이지 않는 법이다(9장).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면 교회 안에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거부감을 보인다. 그들은 땅의 것만을 추구한다. 한국 교회에서 잘 쓰는 말로 하자면 ‘축복’만을 원하다. 물론 영적인 복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으며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에 대한 갈망도 없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복음을 왜곡, 희석시켜온 결과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저자는 확신한다(14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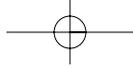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 두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성공할 수 없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고, 인간은 죄인인 고로 스스로에게는 가망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도 소용이 없다. 아무리 잘 달래도 그들이 결코 그리스도께 접붙여지지 않는다.

십자가의 복음이 인기 있을 리가 없다. 참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인기는 물 건너 간다(29쪽). 좁은 문, 험한 길을 가자고 하는 설교가 인기 있을 리가 만무하다.

희망은 없는가?

하지만 이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시험해 보려하지 않을 것이다(고후 13:5). “설교의 목표 - 복음 제시의 목표, 교회의 목표 - 는 단지 모든 사람을 빨아들여 그들이 편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이 아니라 가짜에서 진짜를 구별해 낼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오직 구원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타협하거나 왜곡시키지 않고 전하는 것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복음일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다(1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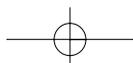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장단점

맥아더는 언제나 성경 본문을 풀어간다. 현상을 보고 질타하지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한다. 그의 책을 주목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글이 쉽고 핵심은 간명하다. 그래서 그의 책이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다.

저자의 뛰어난 안목에도 불구하고 흠이 보인다. 그는 세대주의자이다. 그래서 곳곳에서 종말론에 대한 오류가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별 무리는 없어 보인다.

생각할 문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의문이 하나 남는다. 십자가의 복음이 인기가 없다고 저자가 말하고 있는데 저자의 인기는 왜 이리 상당한 걸까? 그보다 더한 의문이 있다.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저자의 인기가 높은 걸까? 그의 글을 한국 교회에 적용시킨다면 교회다운 교회, 신자다운 신자는 별로 남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저자의 책을 출판사들이 경쟁적으로 번역해 낸다. 복음만을 전하는 저자를 좋아할 만큼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복음적이고 성경적이어서일까? 멀리, 기독교 국가로 보이는 미국의 한 유명한 목회자요 신학자이지만 우리 눈앞에서 책망하지 않기 때문일까? 막상 우리 앞에 서면 달라질까?



학술원 소식 | 편집부



개혁주의학술원 소식



제3회 칼빈 학술세미나

주제

칼빈의 개혁사상과
한국교회

+ 제3회 칼빈학술세미나

제3회 칼빈학술세미나를 “칼빈의 개혁사상과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이양호 교수(연세대 신과대학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합니다.

- 주제 : 칼빈의 개혁사상과 한국교회
- 강사 : 이양호 교수 (연세대 신과대학 교수)
- 일시: 2011년 5월 16일(월) 오후 2시
- 장소: 고신대학교 비전관 4401 강의실

+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총서 제 6집 『칼빈과 종교개혁가들』출판예정

내년 2월에 『칼빈과 종교개혁가들』를 출판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과 교회개혁의 현장을 생생하게 맞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칼빈과 루터 - 신정우 박사
2. 칼빈과 부셔 - 황대우 박사
3. 칼빈과 파렐 - 안인섭 박사
4. 칼빈과 멜랑흐톤 - 이성호 박사
5. 칼빈과 베자 - 임원택 박사
6. 칼빈과 베르미글리 - 김진홍 박사
7. 칼빈과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 이남규 박사
8. 칼빈과 불링거 - 박상봉 박사
9. 칼빈과 재세레파들 - 이상규 박사
10. 칼빈과 칼빈의 대적자들(볼섹, 카스텔리오, 세르베투스) - 이신열 박사

+ 칼빈 오페라 프로그램 개발

칼빈 오페라 프로그램 개발은 한국 신학계와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획기적인 일이며, 전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개발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본 개혁주의 학술원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의 전집을 손쉽게 연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신학계와 고신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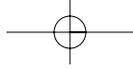
1. 프로그램 내용 : 칼빈의 오페라 전집(칼빈의 모든 저작물)
 칼빈의 영어 주석
 라틴어 검색 사전

2. 특징

- ① 높은 검색 효율성 : 99%의 검색 일치성과 함께 단어 검색을 통해 모든 저작물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 결과 앞뒤 문장을 함께 보여줌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 ② 칼빈의 영어 주석 제공 : 주석은 라틴어에 익숙지 않을 경우 영어 주석 본문에서 라틴어 본문으로 링크되어 원본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사전 기능 제공 : 칼빈의 오페라 원문 이해를 위해 라틴어 사전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 ④ 메모 기능 제공 : 사용자가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메모하고자 할 수 있으며, 메모 저장 및 불러오기를 통해 다음에도 다시 이용할 수 있다.
- ⑤ 업데이트 기능 제공 : 본 프로그램은 오류 발견 혹은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요청될 경우 개혁주의 학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 및 최신 내용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 이상규 교수 본 학술원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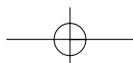
지난 5년간 원장으로 봉사한 고신대 신학과 이환봉 교수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0년 11월 27일자로 고신대 신학과 이상규 교수가 본 학술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이상규 교수는 고신대학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고신대학교 대학원에서 몰트만의 종말론에 대한 연구로 신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호주로 유학하여 멜보른에 위치한 장로교신학대학에서 교회사를 연구하고 호주신학대학(ACT)에서 호주장로교회의 한국선교사를 연구하여 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이교수는 초기기독교, 16세기, 근대선교운동사, 한국교회사 등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여러 학회와 학술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쓴 책으로는 「한국에서의 칼빈연구 100년, 1884-1984」(개혁주의 신행협회, 1984), 「기독교세계관으로 본 서편제」(공저, 기독교대학 설립 동역회,



1993), 「교회개혁사」(성광문화사, 1997), 「한상동목사, 그의 생애와 신앙」(글마당, 2000), 「교회의 역사」(영문, 2000), 부산지방 기독교전래사」(글마당, 2001), 「교회개혁과 부흥운동」(SFC, 2004), 「헬라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SFC, 2006. 3), 「한상동과 그의 시대」(SFC, 2006), 「개혁주의란 무엇인가?」(고신대학교 출판부, 2007),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생명의 양식, 2007), 「교양으로 읽는 역사」(SFC, 2009) 등이 있고, 역서로는 와타나베 노부오의 「기독교강요란 어떤 책인가?」(고신대학교출판부, 2000), 존 드라이버의 「초기 교회에서의 전쟁과 평화」(KAC, 2010) 등이 있고, 영문으로 쓴 To Korea with Love (2009) 가 있다. 현재 고신대학교 신학과에서 역사신학(교회사)을 담당하고 있다.

+ 책임연구원 및 행정연구원

이상규 원장이 취임함에 따라 2010년 12월 6일부로 황대우 박사가 책임연구원으로 임명되었다. 황대우 박사는 고신대학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네덜란드 Apeldoorn 기독교개혁신학대학교에서 “Het mystieke lichaam van Christus. De ecclesiologie van Martin Buceren Johannes Calvin” (2002)라는 논문으로 신학박사(Th. D.) 학위를 받았다. 저술로는 『삶, 나 아닌 남을 위하여』, 『라틴어: 문법과 구문론』, 『칼빈과 개혁주의』가 있다. 행정연구원 조기영 목사는 본원 설립시 부터 행정연구원으로 봉사해 왔다.



+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총서 제5권 『칼빈과 예배』 출판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총서 제5권『칼빈과 예배』가 출판되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배 (이승구 교수)
- 16세기 개신교 예배 이해와 칼빈 (최윤배 교수)
- 예배의 구성 요소에 대한 칼빈의 이해와 실천 (주종훈 교수)
- 칼빈의 예배 이해 (송영목 교수)
- 칼빈의 예배 이해를 통해서 본 설교의 본질 (이우제 교수)
- 칼빈 신학의 전반적 맥락에서 본 그의 성찬교리 (로버트 레탐 교수)
- 예배 안에서의 하나됨 (김재윤 교수)
- 칼빈의 예배와 영적 전투 이해 (이신열 교수)
- 칼빈과 예식서 (루돌프 피터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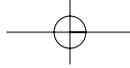
개혁주의학술원 후원교회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을 위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세계적인 최상의 연구기관 형성과 학술연구 활동을 약속합니다.

2011. 4. 현재 / 총 42교회 / 가나다 순

가음정교회	매일교회	부암제일교회	용호중앙교회	총무제일교회
거창교회	명덕교회	사직동교회	울산동부교회	포항총진교회
경주교회	모든민족교회	삼일교회	울산동일교회	한밭교회
김해중앙교회	반송제일교회	삼한교회	울산한빛교회	한울교회2청년
남천교회	부산동교회	서문로교회	제4영도교회	활천제일교회
대양교회	부산범천교회	성도교회	진해남부교회	향상교회
대저제일교회	부산북교회	성로교회	진주동부교회	
동상교회	부산비전교회	성은교회	창원한빛교회	
등촌교회	부산서면교회	성안교회	초장동교회	

무통장 입금 및 자동이체 계좌 • 농협 485-01-032852 (예금주 : 고신대개혁주의학술원)



Korea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 <http://www.kirs.kr>

